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베이커, 주경찰 이민자 구금 법안 제정

대권 의식 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와 대립각 세워 주대법, 영장없는 이민자 구금 불법 판결에 반발 주의회 '피난처 주' 제정에는 공식 반대입장 천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주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민단속국(ICE)이 이민자 구금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지다. 주지사는 주 대법원이 25일 영장없이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지 2일만에 반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주내 지지율일 70%가 넘는 미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주지사다. 의료 보험, 복지, 성소수자 등의 문제에선 비교적 진보적 입장을 내비치고 경제, 세금, 재정, 이민 문제 등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도 노선을 적절하게 걷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향후 대권을 의식한 탓인지 대법원의 이민자 판결 이후 이민사회에 대한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베이커의 리지 가이튼 대변인은 26일 밤 성명서를 통해 “주 경찰은 계속해서 연방이민국에 쫓고 있는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방면시 이를 이민단속국에 통보하는 등 권한이 주어진 한에서 협조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베이커 행정부는 주경찰에게 살인 또는 강간 등 극악한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던 범인에 대해 이민국이 즉시 답을 주지 않는 경우 구금할 수 있는 공식적 법적 권한을 담은 법의 제정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가이튼의 주장은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 보면 전혀 다른 의도가 담겨있다. 베이커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2016년 6월 베이커 행정부가 주경찰과 연방이민경찰과의 협조 수준을 확대했던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다. 즉 이민단속국의 디테이너(The Detainer; 구금요청)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대법원은 24일 경찰이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만을 바탕으로 체포영장없이 이민자를 구금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즉 소위 ‘디테이너’ 를 금지한 것 >>>3면으로 계속



찰리 베이커 주지사

보스톤 차량정체 운전자들 속터져

5년사이 주행거리 10%, 주행시간 50% 증가 부부싸움 원인, PTSD 진단 받는 사례 늘어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보스톤 지역의 러시아워는 언제일까. 지난 5년간 보스톤 근교의 주행시간은 50% 증가하고 이러한 상승적인 정체에 시외 통근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 교외 차량 운전시간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데이터 분석기관인 Inrix의 조사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운전자들의 총 이동 거리는 2013년 1분기 178억마일에서 2017년 189억마일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거리 구간의 소요시간도 증가했다. 예를 들면 5~6월 기간의 평일 2~3시 I-93 고속도로의 북측인 24번 출구에서 37번 출구 사이(11마일)의 소요 시간은 2013년 평균 12.5분에서 2017년 평균 18분으로 50%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주말 정오 I-93 남측인 8번 출구에서 24번 출구는 2013년 평균 13.6분에서 2017년 평균 22분으로 증가했다. 이보다 더 먼 케이프코드의 경우 사가모어 교(Sagamore Bridge)와 본 교(Bourne Bridge)의 통행량이 지난 40여 년 사이에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출발 **한국행항공권 \$870~**부터

미서부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고국관광 (로스앤젤레스 포함)
보세티타/샌프란시스코 4박5일 \$465~	서남권 3박4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609~
미서부3대개방 4박5일 \$470~	충북만 3박4일 (대전, 세종, 충청남도) \$609~
미동부관광 (뉴욕 포함)	선국일주 8박9일 (시애틀, 로키산, 밴쿠버)
워싱턴 / 나이아가라 리 뉴욕시대 4박5일 \$680~	\$1,388~
미동부&캐나다 4박5일 \$800~	

IACE TRAVEL 부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Dr.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대표원장
Dr.Chang Yoon,DPT
브룩라인(하나병원) 원장
Dr.Miran Kwon,DPT

교통사고/학생보험/닥터노트/여행자보험
울스톤 크리닉
617.731.1001
브룩라인 크리닉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Tel: 617.935.3241
WWW.BOSTONPARKREALTY.COM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주대법, 영장없이 이민자 구금 불법 판결

주정부가 허용했던 '디테이너' 사실상 불법 선언 기소각하, 형기만료, 보석석방 이민자 구속 못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인 대법원(SJC)은 24일 주 경찰이 단지 연방이민단속국(ICE)의 요청만을 바탕으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주 법은 경찰이 '연방 민사 이민 디테이너' (Federal Civil Immigration Detainer)만을 바탕으로 디테이너가 아닌 경우 주의 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디테이너' 는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범죄형 절차가 완료됐으며 방면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구금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은 기소가 각하됐거나, 보석으로 방면됐거나,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을 의미한다.

'디테이너' 는 판사의 서명과 충분한 구금 사유에 대한 물증이 필요한 체포영장과는 다른 것으로 이민 단속국에게 2일간의 시간을 벌여 해당 이민자의 이민신분을 파악하고 향후 추방 절차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보스톤 이민경찰국장 C.M 크로넨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사를 표했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경찰이 주민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 이라고 비판하고 "이민단속국은 이번 판결을 검토해서 다음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제프 세션스 미법무장관은 '디테이너' 는 연방 이민관계자들에게 범외자를 색출해 내는 한편 이민자들의 신분을 조사토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강경노선으로 잘 알려진 브리스톨카운티 토마스 호저슨 보안관은 "판결이 매사추사츠 주민들과 방문자들이 범외의 피해자가 되기 쉽도록 만들었다" 고 혹평했다.

그러나 공공안전과 '디테이너' 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변호인측의 반론이다. "디테이너는 단지 무죄가 증명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기소가 각하됐거나 보석금을 내고 방면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코 주민들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스티븐 런(32)씨의 케이스에 대한 판결이었다.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인 대법원(SJC)은 24일 주 경찰이 단지 연방이민단속국(ICE)의 요청만을 바탕으로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런씨는 2016년 10월 24일 비무장 강도혐의로 기소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정에 소환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소환 하루 전 민사 이민 디테이너를 발부했다. 디테이너는 매사추세츠 경찰에게 런을 소환 후 방면하지 말고 2일간 구금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었다. 그동안 이민 단속국 경찰이 도착해 그를 이민감금 시설에

감금하겠다는 취지였다. 런은 2008년 이래 몇 번이나 연방감금시설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현재 구금상태이다. 그는 연방이민국이 그를 추방하려 시도하기까지 3개월이나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런 씨는 태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국의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캄보디아 출신이었다. 따라서 두나라 모두 그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양국 모두 그를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미국은 어느 곳에도 그를 추방할 수가 없게 됐다. 린 씨는 6월 변호사가 적절한 법절차에 준하지 않고 감금되어 있다고 지적해 결국 풀려났다.

37세때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아 자살

2017년 5월 한국에서는 미국으로 입양됐다 지난 2012년 추방당한 필립 클레이씨(42)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아무런 연구도 없고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한 37세의 클레이는 한국사회 어느 곳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결국 투신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2일 후에야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신고로 알려졌다.

입양했던 부모는 그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마약중독으로 체포된 경력으로 인해 추방당했다.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추방이 '사형판결'이었던 셈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hsb@bostonkorea.com



2012년 추방당한 필립 클레이씨(42)가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



베이커 주지사 입장

"살인 또는 강간 등 극악한 범죄도 유죄가 선고됐던 범인에 대해 이민국이 즉시 압을 주지 않는 경우 구금할 수 있는 공석의 법적 권한을 주정찰에게 주겠다"



실제 의미

"범죄 행렬 절차가 완료된 이민자들 즉 기소 각하, 형기만료, 보석 등으로 풀려나야 하는 이민자들을 주정찰에게 구금할 시간을 주어 이민단속국에서 그들의 신분을 파악하고 추방할 수 있게 하겠다"



법원 판결

"충분한 구금의 사유에 대한 물증이 필요한 편서 시명이 담긴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의 <디테이너>요청만으로 주정찰이 이민자를 감금할 권한 없다"

베이커, 주경찰 이민자 구금 법안 곧 상정

▶▶1면에 이어서이다.

'디테이너' 는 연방이민단속국(ICE)이 범죄형 절차가 완료됐으며 방면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구금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소가 각하됐거나, 보석으로 방면됐거나,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을 의미한다.

'디테이너' 는 판사의 서명과 충분한 구금사유에 대한 물증이 필요한 체포영장과는 다른 것으로 이민 단속국에게 2일간의 시간을 벌여 해당 이민자의 이민신분을 파악하고 향후 추방절차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주지사의 보좌관은 '디테이너' 를 허용하는

법안을 복원시키겠다는 것에 대한 이민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주정부는 교통단속 등 경미한 민사위법으로 감금된 경우에 대한 이민국의 '디테이너' 에 대해서는 구금을 금지토록 하는 과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주지사는 상하원이 8월 정회가 시작되는 다음 주께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번 성명을 통해 주의회가 제정한 소위 '피난처주' 법안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피난처 주는 경찰들이 연방이민단속국과 협조를 범으로 제한하는 주를 말한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성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Class	Time
SAT II MATH IIC Prep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AP/SAT II Biology Prep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AP/SAT II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II MATH I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JULY 10 - JULY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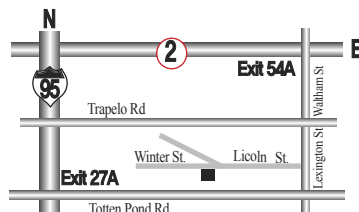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Biology preview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AUGUST 7 - AUGUST 25

Class	Time
SAT I Prep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I Prep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보스톤 한미노인회 한국전 참전유공자 보은 오찬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한미노인회와 국제결혼가정선교회 는 7월 22일 토요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보은행사를 가졌다.

보스톤총영사관과 재향군인회의 협조아래 참전용사 및 한인 15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된 행사에서 엄성준 보스톤총영사는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총영사는 또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보은행사를 마련한 노인회, 국제선 등 지역단체에 감사사를 표했다.

보스톤한미노인회는 그동안 연습한 아리랑 난타공연을 선보여 참전용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공연 후 참석자들은 뷔페로 마련된 한식 오찬을 함께 했다.

행사에 참석했던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는 “한마디로 이날 행사는 정성이 가득 담긴 행사였다. 이

른 아침부터 국제선과 노인회의 임원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젊은 봉사자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셋팅하고 참전 유공자들에게 선 보일 공연을 준비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분주히 움직이며 모두가 보은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의미있는 행사였다.” 였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한미노인회와 국제결혼가정선교회는 7월 22일 토요일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가족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보은행사를 가졌다

<사진 뉴스> 국제선 씨스코지회 초청 보스톤 한미노인회 아유회 성황



국제선 보스톤지회와 한미노인회가 국제선 씨스코 지회 Sucha Baker회장 및 임원들의 초대로 바닷가 나들이를 다녀왔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광복절 한국의 날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8월 12일 토요일 저녁 로드아일랜드 워릭(Warwick, RI) 소재 로드아일랜드 커뮤니티칼리지(CCRI) 바비랙극장(Bobby Hackett Theater)에서 광복절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진 후 뷔페로 마련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오정희 가야금병창단 우리가락 한국문화예술원이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국악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연주회에는 오정희, 강은주, 박은지, 한희정, 딘 폴슨 등이 참여한다.

한인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식을 가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부여 인삼창

갱년기 여성건강
[원활한 신계 생리 조절]

면역력 증진
[환경호르몬 장애 예방]

홍삼 6대기능
[식약처 인정]

항산화 작용
[노화억제]

피로 개선
[기력회복]
[정력개선]

기억력 개선
[두뇌기능 개선]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당뇨 합병증 예방]

알고 계시나요?
매장을 찾은 많은 손님들께서 근절을 지분하고 홍삼 음료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수출용 라벨 표기에 **Ginseng Drink - Beverage** 라고 적혀있을경우 홍삼 함유량은 아주 미미한 제품입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청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뉴햄프셔 한인회 한인교회 방문행사 시작

한인회 행사 설명하고 한인사회 발전방향 청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햄프셔 한인회는 주 소재 한인교회를 방문해 동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청취하는 교회방문 행사를 7월 28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인회는 28일 뉴햄프셔 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주내 한인교회를 방문해 한인사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동시에 한인회의 활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회방문행사에는 조은경회장을 비롯해 한인회 고문 이사들이 함께 참여한다.

뉴햄프셔 한인회는 주내 6개 교회를 오는 10월 1일까지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다음은 방문 계획이다.

- 2017년 7월 28일(7:00 PM): 뉴햄프셔 장로교회 (장의한 목사) (508 Union Street, Manchester, NH 03104)
- 2017년 8월 13일(1:30 PM): 뉴햄프셔 한인 교회 (문은호 목사) (12 Sta-



작년 방문행사 모습. (왼쪽부터) 조은경 회장, 황정승 이사 내외, 김섭 고문, 한윤영 고문, 박선우 고문 등이 교회관계자 및 동포들과 대화하고 있다

- tion Road, Bedford, NH 03110)
- 2017년 8월 20일(12:30PM): 레바논 교회 (권혁진 목사) (428 North Main Street, West Lebanon, NH 03784)
- 2017년 9월 17일(1:15 PM): 한담음 교회 (최지원 목사) (555 Broad Street, Nashua, NH 03063)
- 2017년 9월 24일(10:30 AM):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한상신 목사)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 2017년 10월 1일(11:30 AM): 뉴햄프셔 감리교회 (강산 목사) (8 Pleasant Street, Salem, NH 03079) bostonkorean@hotmail.com

여선교회 연합회 뉴잉글랜드연회 수양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연합감리교회 연회와 여선교회 연합회(회장: 손영희) 주최 수양회가 7월 21일부터 1박 2일 간 서던뉴햄프셔대학(SNHU)에서 개최됐다.

뉴잉글랜드 연회는 매년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모임으로 미국인, 한국인 그

리고 다른 민족이 함께 참가해 열린다. 올해는 "2017 Mission U"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이 모임의 선교회에는 5개의 한인교회에서 21명이 참여했으며 강사로는 보스톤 비전교회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홍종욱 목사가 초청됐다.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둘째날의 전체 예배에서도 홍종욱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설교인도를 담당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느헤미야 신학원 한국 신학대와 양해각서 체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느헤미야 신학원(BNI)은 7월 23일 렉싱턴 소재 독고유 BNI이사의 자택에서 한국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MOU체결식에서 이영길 BNI이사장과 김영욱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은 향후 발전적으로 쌍방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두 학원 사이에 교수진 교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BNI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초교과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자체 신학원 및 선교원을 통하여 평신도 신앙지도자 육

성 및 해외선교지 신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별히 북한 개방에 대비한 신학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역시 교과를 초월한 신학대학으로 1,600여명의 학생을 보유한 우수한 신학교다. BNI는 오는 9월 11일(월)부터 2017년 가을 학기를 시작하게 되고, 이에 앞서 9월9일(토)은 이원우 박사를 강사로 초청 보스톤한인교회에서 공개강좌를 가지며 이 시간에 앞서 지난 3년동안 수학한 7명에 대한 졸업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bosni.org에 접속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느헤미야 신학원(BNI)은 7월 23일 렉싱턴 소재 독고유 BNI이사의 자택에서 한국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매스헬스 14만 명 축소 개혁안, 주하원 거부

주지사 매스헬스 14만 명 줄여, 커넥터 케어로 하원, 저소득층에는 적은 부담도 크다 반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하원은 26일 주지사의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 억제 개혁안을 거부했다. 주지사는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매스헬스 대상이 일부를 헬스커넥터 플랜으로 전환하는 대신 주요 기업에게 2억불의 건강보험 수수료를 걷는 개혁안을 제시했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배하고 있는 하원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기업들에게 2억 달러를 추가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방안에는 승인했지만 사업자들이 조건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비용 절약안인 메디케이드 해당자들의 축소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주지사는 이번 하원안을 받아들여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는 그의 116대 41이란 압도적인 표차로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하원의 거부표결은 지금까지 대부분 주지사의 제안에 협조했던 이전과는 다른 행보다. 빈곤층을 보호하면서 재정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 의회는 주지사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조건부로 재계에 신규 수수료를 걷는 타격을 이뤄냈던 주지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매사추세츠 재계는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소매상협회 전 허스트 회장은 “실망스럽다. 합리적인 비용 개혁이라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정치적인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 고 의회의 표결을 비난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하원과 상원이 예산안 편성을 거의 마친 6월 말에 건강보험개혁을 제안했었다. 당시 의회는 복잡한 개혁안을 충분히 심사할 시간이 없으며 주지사의 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실제로는 베이커 법안으로 14만 명의 저소득자들이 보험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주 의회의 예산안에 부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회에 그의 개혁안을 받아들여줄 것을 권했었다. 공화당 주지사과 민주당의 회의의 가장 큰 대결에서 의회는 두번째로 베이커 주지사의 개혁안을 정면 거부한 것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상식적인 접근이라는 입장이다. 19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매스헬스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14만 명의 매스헬스 대상자들을 주 헬스커넥터의 정부 보조 건강보험플랜으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14만 명 해당자는 2인가족 기준 연가계소득이 2017년 연방 빈곤선 기준 100%인 \$16,240에서 138%인 \$21,6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험료를 내지는 않지만 의사방문시 코페이먼트 등 소득의 3%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한 초과보험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커뮤니티 헬스센터 텐탈을 찾아야 비용부담이 없다.

추가적으로 베이커는 저소득 성인들 중 직장의료보험 커버리지가 가능한



주 하원은 26일 주지사의 치솟는 건강보험 비용 억제 개혁안을 거부했다. 주지사는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매스헬스 대상이 일부를 헬스커넥터 플랜으로 전환하는 대신 주요 기업에게 2억불의 건강보험 수수료를 걷는 개혁안을 제시했었다

경우 매스헬스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의회는 최소한 이번만큼은 이번 개혁안이 저소득층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축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매스헬스 수혜자의 수가 상당부분 감소해 즉각적으로 이 같은 개혁안을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겼다는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의 전주민건강보험 및 미국 오바마케어를 이끌어냈던 매사추세츠 단체 헬스케어포올(Health Care For All)의 브라이언 로스만 대표는 의회의 결정에 환호를 보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지사의 개혁안에 대해 의회는 숙고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예결위원장인 제프 산체스의원은 건강보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

았으며 계속 베이커 안을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지도부도 현재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는 법안을 고안중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가 매년 매스헬스(메디케이드)에 들이는 비용은 매년 16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비용부담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매스헬스 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향후 축소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여호와의증인 성서교육 뉴욕 지역대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여호와의 증인 성서교육프로그램 한국어 지역대회가 8월 4일부터 3일간 뉴욕 퀸즈 소재 여호와의 증인 대회회관에서 개최된다.

매년 뉴욕, 케네디컷, 매사추세츠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등 지역에서 1천여명의 한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가하는 뉴욕대회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인들을 위한 대회이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4시50분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일요일은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3시30분에 마친다.

장소 : Queens, NY Assembly Hall of Jehovah's Witnesses
44-17 Greenpoint Ave
Sunnyside NY 11104-2407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꼭 맞는 아파트 렌트 구하기, 전문가 조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거나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일지라도 기거할 아파트 렌트를 찾는 것은 힘든 일이다. 맘에 드는 아파트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발품'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때로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터넷 리스트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중개인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수많은 아파트먼트 렌트 정보를 만나게 된다. 이 아파트를 직접 찾아보는 것은 때로는 시간낭비일 수도 있다.

보스톤홈스터리에스테이트에서 1988년 이래 일해왔던 가산 메디는 "아파트를 찾지 말고 좋은 부동산 업자를 찾으라"고 조언한다. 여러 부동산업자를 만나서 믿을만하고 기꺼이 발품을 팔아줄 의사가 있는 부동산 중개인을 선정하라는 얘기가. 이 한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수수료가 지불하는 이유이다.

36법칙을 숙지한다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담되지 않는 적절한 가격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36법칙은 일반적으로 집

주인(Landlord)들이 사용하는 비공식적인 룰이다. 아파트먼트 렌트비가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적절한 렌트라는 의미로 연 소득을 36으로 나누어 보면 충분히 적절하게 지불할 수 있는 렌트 가격 한도선이라 할 수 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선택해야 본인에게도 좋고 랜드로들도 기꺼이 방을 렌트해주게 된다.

36법칙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학생이나 최근 은퇴한 사람 또는 자영업자, 유학생들, 실직자의 경우 때로 집주인이 리스계약(Rental Lease)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거부하는 이유는 크레딧점수가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크레딧 점수가 좋고 재력이 있는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슈어렌트(Insurent) 등의 렌탈 보증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인슈어렌트의 찰스 웨노우 전무는 "많은 렌트희망자들이 여러가지 장애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의 경우 50%의 입주자들이 충분히 집주인들의 원하는 소득 및 크레딧 기준에 미달해 렌탈보증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슈어렌트 등의 렌탈 보증회사는 보통 한 달 렌트비의 65-10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다

. 크레딧이 없는 유학생들의 경우 렌트비의 110%의 수수료를 받고 렌탈보증을 발급한다.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집을 구하라
렌트를 하기위해선 매일 생활하는 패턴을 고려한다. 일단 매일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이 우선인지 메모해본다. 집을 발견하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보고 리스 시작일이 언제가 가능한지 점검한다. 리스 시작일이 맞다면 바로 계약을 생각한다. 또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몇 층인지, 주차장은 있는지, 세탁실은 가까운 지 등이다.

효율성이 최고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과 최소한 3번 정도의 대화를 하는 게 좋다. 먼저 원치 않은 것을 먼저 얘기한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렌트신청서 꼼꼼히 채울수록 좋다
렌트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좋다. 특히 아파트가 빠른 시간안에 결정되어서 나가는 보스톤과 같은 곳에서는 일단 집을 보러 갈 경우 신청준비서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원하는 아파트를 발견한 경우 시간을 갖고 아파트 신청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기입한다

. 집주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기입한 사람을 원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청서를 충분한 시간이 없어 모두 작성하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 비록 신뢰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서둘러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살면서 내부에 곰팡이 같은 스팟을 발견해도 그냥 지나치고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게 될 확률이 많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파트 밖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첫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인근에는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도보 거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좋다. 빌딩에 들어서면 주차장이 있는지 세탁실이 구비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지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룸에 들어가서 룸에 대한 것을 점검한다.

룸안에 들어가서는 가장 우선순위의 요소가 충족되는지 살펴야 한다. 유리창도 충분히 방음이 되는지 열이 잘 차단될 것인지 보아야 한다. 실내 카운터 바가 있는 것은 매력 요소이지 렌트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료,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선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넵툰 오이스터(Neptune Oyster)

보스톤 내 최고의 씨푸드 레스토랑 10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대서양을 끼고 있는 보스톤은 해물 요리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보스톤닷컴(boston.com)은 22일 미국 최대의 레스토랑 및 코걸 비즈니스 리뷰 사이트인 옐프(yelp.com)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스톤 내 최고의 씨푸드 레스토랑 열 곳을 소개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의 리뷰에 따른 것이다.

1. 넵툰 오이스터(Neptune Oyster)
63 Salem St., North End
인근 해안에서 잡히는 생선과 제철 재료를 이용하여 꾸민 메뉴들을 선보인다. 매사추세츠만에서 잡히는 줄무늬농어와 제철 콩이 조리조와 함께 곁들여 나오는 요리는 레스토랑 주인장인 네이스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그의 록포트 고등어를 통째로 구워 감자와 샐러드와 함께 서빙되는 '베라 크루즈'도 추천한다. 최고의 인기 메뉴는 단연 랍스터 롤.

2. 매노아 폴 샵(Manoa Pole Shop)
300 Beacon St., Somerville
하와이에서 온 요시아와 샘 본세이 형제가 하와이안 스타일 해물 요리를 선보인다. 한입 크기로 조각 낸 생선을 움푹한 그릇에 듬뿍 담은 것이 메인 요리. 펠머스에서 잡히는 게르치와 방어, 메인에서 양식으로 키운 생선을 각각 다른 양념에 구워낸다. 가끔적이면 생산 포획지에서 손님의 접시까지의 거

리를 가장 짧게 하고 싶다는 본세이 형제는 요리 뿐만 아니라 유통 경로를 개선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한다.

3. 아쿠아 파자(Aqua Pazza)
135 Richmond St., North End
역사적인 관광명소 노스엔드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가미하고 싶었다는 레스토랑 사장 마이크 파퀘트. 이태리 남부 해산물 요리에 현재 이태리의 요리 트렌드를 가미했다. 회에서부터 타파스까지 다양한 메뉴를 취급한다. 레스토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점보 랍크랩 케이크. 파퀘트의 추천 요리는 팬에서 구운 감성돔요리. 아티초크와 그레이프프루트 소스와 곁들여 나온다.

4. 셸티 걸(Saltie Girl)
281 Dartmouth St., Back Bay
모던한 해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으로 고등어 구이와 같은 평범한 요리부터 새끼 장어 구이와 같은 특별한 요리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뉴잉글랜드의 전통적인 랍스터롤에는 남부요리 스타일을 더해 와플과 옥수수 버터, 매콤한 메이플 시럽과 함께 서빙한다. 바닷가 느낌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또한 요리의 맛을 더해준다.

5. 로우 34(Row 34)
383 Congress St., South Boston
로우 34에는 두가지 종류의 바가 있다. 맥주와 오이스터 바. 24가지 종류의

맥주와 11가지 종류의 해산물 요리를 취급한다. 가장 잘 팔리는 메뉴는 랍스터롤로 지난 6월에만 4000개가 팔려나갔다. 요리사 제레미 시월이 추천하는 메뉴는 참치 크루도와 아보카도, 흑마늘 아이올리를 곁들인 요리.

6. 파울리스(Pauli's)
65 Salem St., North End
보스톤 셸틱스의 센터 아론 베인즈가 처음 팀에 합류했을 당시 랍스터를 먹기 위해 방문했던 레스토랑이다. 각각 다른 크기의 랍스터는 7온스, 14온스, 25온스로 다양하며, 25온스짜리 랍스터롤의 이름은 U.S.S. 랍스티튜션. 가게 주인 폴 베이커는 랍스터 롤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커다란 랍스터 고기 덩어리와 아주 약간의 마요네즈를 꼽았다.

7. 루크네 랍스터(Luke's Lobster)
75 Exeter St., Back Bay
한가지 해산물 요리만 고르는 것이 어려울 때 랍스터를 반개와 크랩을 반개, 새우를 반개가 나오는 루크 트리오(Luke's Trio)는 완벽한 해결책이다. 각각의 롤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며, 크랩 차우더와 랍스터 비스크, 시즈닝 샐러드가 판매된다. 패스트-캐주얼 레스토랑으로 미국 내 여러곳에 지점이 있다.

8. 로코 타케리아 & 오이스터 바(Loco Taqueria & Oyster Bar)

412 W. Broadway, South Boston
레스토랑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가지 메뉴 - 타코와 해산물을 취급한다. 현재 제공되는 특별메뉴는 남미의 회요리인 세비체로 참치 세비체, 굴 세비체 등 다섯가지 세비체를 선보이고 있다.

9. 얼라이브 & 킥링 랍스터(Alive & Kicking Lobsters)

269 Putnam Ave., Cambridge
피쉬 마켓으로 운영 중인 이곳은 지난 20년 동안 신선한 해물을 보스톤 시내에 제공해왔다. 자그마한 케임브리지 가게는 100척의 어선을 운영 중이다. 여름특별 메뉴는 랍스터 요리로 흥

합과 크랩, 옥수수가 같이 서빙된다. 이곳의 주인장 루이스 매스트란젤로의 추천메뉴는 랍스터를 보다는 더 맛있다고 하는 랍스터 샌드위치.

10. 일 몰로(il Molo)
326 Commercial St., North End
노스엔드의 전통적인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토마토 소스를 곁들인 메뉴들이 제공된다. 가장 인기가 좋은 에피타이저는 뉴잉글랜드와 매릴랜드 전통 요리가 결합한 랍스터 크랩 케이크와 구운 스페니쉬 오징어. 팬에 구운 관자에 랍스터 크랩과 샤프란 리조토를 곁들인 요리 또한 인기다.
sun@bostonkorea.com

느려지는 주행속도, 운전자들 속터져

▶▶1면에 이어서

2배로 증가했다고 케이프 코드 위원회 교통 계획 담당인 스티븐 투퍼 씨는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저렴한 휘발유 가격, 낮은 실업률과 최근 보스톤 근교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보스톤 근교 주민이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도로 수용률은 30년 전과 다를 바 없어 포화상태에 다다랐으며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WBZ 라디오 뉴스국의 교통 리포터 크리스틴 에크 씨는 주말에도 출퇴근 시간과 같은 교통정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외에서 보스톤 시내로 출퇴근을 하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뉴베리 스트리트에서 교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알렉스 이아코바치 씨는 "일찍 출발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는 법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얼마전 우편에서 열린 모임에 다녀왔다는 한국인 김 모

씨도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평일 낮에 출발했는데 곳곳에 사고차량으로 시작된 정체로 차량 진행이 늦어지더니 급기야 러시아워 시간에 다다르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러한 교통 체증으로 유발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마운트 어번 카운슬링 센터의 카일 카니 씨는 교통문제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사례는 '교통 체증에 대해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고 아내는 짜증 섞인 남편의 말투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을 학교에서 픽업하는 아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업적인 요인으로 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도 예정된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봐 걱정하면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한 자린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랍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오엘 성형외과

【오엘 성형외과 휴랍이벤트】

볼보	500-1200-100	500-1500-100	500-2000-100
리프트	100-200-100	200-300-100	300-400-100
안면주사	100-200-100	200-300-100	300-400-100
안면마사지	100-200-100	200-300-100	300-400-100

김수남 | 185-20 HARVARD AVENUE ALLSTON, MA 02134 | 617-202-3808

shalom DENTISTRY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레드삭스 경기 관람, 이렇게 하면 후회 없다 (2)

비싼 주차장 가격, 공식 주차장 이용하면 \$30 절약 가능
미리 알고 준비하면 즐길거리 많아, 먹거리는 다소 비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여름 휴가를 맞아 보스톤으로 놀러온 일본인 에리카씨. 그녀는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를 꼽았다. 작년까지 보스톤에서 활약했던 일본인 투수 우에하라와 타자 와는 없지만 미국 최고(最古)의 야구장과 최고(最高)의 야구팀인 레드삭스의 경기를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주는 지난주 레드삭스 예약편에 이은 실전편으로 보스톤 초보 여행자에게 에리카씨를 취재하며 펜웨이 파크의 즐길거리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있다.

시내의 친구집에 머물고 있는 에리카씨는 다운타운에서 그린라인을 타고 펜웨이로 향했다. 초행길이었지만 레드삭스 응원복을 입은 많은 팬들이 한꺼번에 탑승하고 또 한꺼번에 우르르 하차한 덕분에 어떤 노선을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할지 쉽게 알 수 있었다.

〈교통 Tip〉

펜웨이 파크의 주변 교통은 매우 혼잡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경기 몇 시간전 미리 도착해 두면 좋다. 특히 경기시간 일찍 펜웨이 파크에 도착한다면 필드에서 몸을 푸는 선수들을 감상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대중교통은 그린 B, C, D라인을 이용해 켄모어 역에서 펜웨이 파크까지 도보 5분에 도착할 수 있다. 펜웨이에서 떠나는 막차시간은 새벽 12시 10분이다.

커뮤터 레일을 이용하는 경우 요키(Yawkey) 역에 정차하는 프라이밍엄/우스터라인을 제외하고 찰스강 이북 지역은 노스 스테이션, 찰스강 이남 지역은 사우스 스테이션에서 상기의 전철을 이용하면 된다.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1마일 이

상 떨어진 레드삭스의 공식 주차장을 이용하면 \$30를 절약할 수 있다. 100 Clarendon Garage는 티켓 구매자에 한해 \$10에 주차권(온라인 선구매)을 판매한다. 프루덴셜 센터의 주차장의 경우 레드삭스의 저녁 및 주말경기 구매자에 한해 \$18에 주차권을 판매한다. 두 주차장의 허용된 차량 수용 한도는 각각 2,000대이며, 펜웨이 파크에서 1마일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시간 배분에 주의를 요한다.

경기 시작 전 내리기 시작한 장대비는 1시간 후 겨우 잦아들어 저녁 8시 들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3회 말까지 양팀은 0-0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고, 그 사이 배가 고파진 에리카씨는 야구장 먹거리 탐사에 나섰다. 처음에는 비싼 가격표를 보고 잠시 멈칫한 에리카 씨였지만 이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펜웨이의 명물인 펜웨이 프랑크와 마스코트 월리 모양의 그릇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

〈먹거리 Tip〉

펜웨이 파크 안에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야구팬들을 유혹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펜웨이 프랑크(\$5.25). 빵(Bun) 안에 소세지만 들어가 일반 핫도그와 비교해서 큰 특색은 없지만 펜웨이 파크에서 가장 오랫동안 팔린 명물이다. 요즘에는 헬멧이나 마스코트 모양 그릇 등 기념품 모양 그릇에 담긴 아이스크림(\$6.50, \$8.00), 치킨 tender (\$12.00), 프렌치 프라이(\$6.50), 나초(\$8.00), 팝콘(\$8.50, 리필가능) 등도 인기가 많다. 이 외에도 랍스타 롤(시가)이나 크랩차우더(\$8.50)도 펜웨이가 자랑하는 먹거리다. 생수(16oz) 한병이 \$4.50로 비싸지만 물의 경우 경기장 내에 음수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주류는 드래프트 기준으로 버드라이트 \$9.50, 사무엘 아담스 \$10.25, 캔맥주는 \$8.00이다. 맥



주 이외에도 보드카나 와인, 무알콜 맥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주류 구입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1인당 2개로 제한된다. 또한 7회 말 이후로는 주류 판매가 중단된다.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먹거리를 파는 직원들도 미국 야구의 특색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찰만 받으므로 현찰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기장 내 ATM(뱅크 오브 아메리카)기를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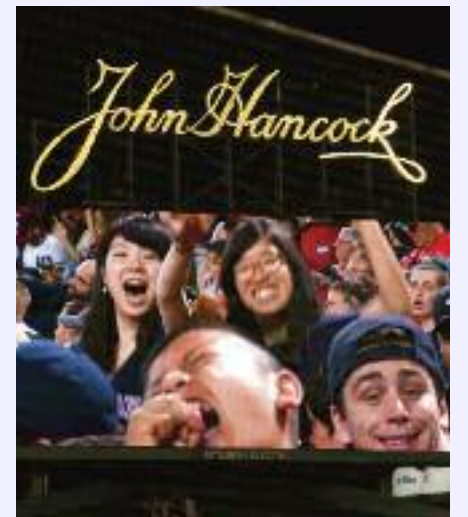
〈그 외에 즐길거리 Tip〉

미국 야구장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재미는 7회 공수교대 타임에 관중들과 다함께 부르는 노래다. 펜웨이 파크의 경우 해리 캐리의 미국 야구의 국가(國歌)격인 '테이크 미 아웃 투더 볼 게임(Take me out to the ball game)'과 함께 '스윗 캐롤라인(Sweet Caroline)'을 부른다. 재미있는 점은 이 두 노래를 만든 사람들은 레드삭스 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뉴욕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기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레드삭스의 역사적인 기록을 전시해 둔 곳이나 기념 사진을 찍을만한 곳이 곳곳에 있으므로 구경해 보는 것도 좋다.

레드삭스의 팬들이 노래로 열심히 응원한 덕

분인지 2-3으로 끌려가던 레드삭스는 기어이 7회 말 공격에서 동점을 만들더니 연장 15회 말 타석에 들어선 4번타자 라미레즈가 그린 몬스터를 넘기는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다. 장장 4시간 59분의 긴 승부로 지칠만도 했지만 마지막까



지 남은 팬들은 대역전극에 환호했다. 경기가 끝난 시간은 새벽 1시 9분, 막차도 끝난 시간이었지만 에리카씨는 "평생에 한 번뿐인 대단한 경기였다"며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이날 있었던 야구 이야기를 씩씩이 이어갔다.

itshunne@bostonkorea.com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목 - 일요일까지
픽업: 목-일, 새벽부터 오전9시까지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FAX: 978.796.5245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당신의 환한 미소가
바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당신을 위한 놀라운 선물.

ESTÉE LAUDER GIFTS

7월 30일 일요일부터 8월 9일까지



사은품 증정

75불 구입시, 니만 마커스 화장백
및 화장품 선물세트 증정

125불 이상 구입시
고급 스카프 증정

Neiman Marcus

코플리 플레이스 617.536.3660 네틱몰 508.620.57010

정규 가격으로 Estée Lauder 구매시, 고객 1명당 화장품이 들어있는 화장백 1개와 스카프 1개가 제공됩니다. 제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아마존 다음주 미국 전역서 잡페어 개최

수만 명 채용 결정이 잡페어 당일에 이루어져
오프라인 업체들은 인력 감축, 아마존은 신규 채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온라인 시장의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 최대 규모의 잡페어를 개최한다. 아마존은 다음 주에 자사의 창고가 위치한 지역에서 잡페어를 개최하여 단 하루 동안 수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채용하는 직종은 주로 대형 창고에서 소포를 포장하고 박스를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일이다. 전체 5만여 개의 일자리 중 4만여 개의 일자리가 풀타임 포지션이다. 이미 아마존은 내년 중순까지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개최되는 잡페어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일부이다.

아마존이 급격한 상승세와 더불어 오프라인에서 대규모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모습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가게들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비재를 판매하는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다음 주에 진행되는 아마존의 대규모 신규 채용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리 직원들을 묶어두기 위한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쇼핑과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연말에 임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존은 미리 직원들을 뽑아 놓고 안정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을 대비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연말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쇼핑 업계는 올해 더욱 힘든 구인난을 겪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현재 4.4%로 1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아마존이 이번에 주최하는 잡페어는 채용 규모도 크지만, 그 자리에서 채용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글래스도어의 수석 경제학자인 앤드류 챔버레인은 일손은 부족한데 아마존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서 채용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챔버레인은 “가용한 노동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쩌면 (사람이 부족해) 채용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는 2011년 말에 56,000명 선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340,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케이마트와 시어스는 같은 기간 동안 절반 가까이 인력을 감축했다.

이번 잡페어는 미국 내 아마존 창고가 있는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풀리버 지역 (1180 Innovation Way, Fall River, MA 02720)에서 잡페어가 열리며 8월 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된다.

jsi@bostonkorea.com



MA주 평균 집값 사상 처음 40만 달러 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40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에서 6월에 판매된 싱글-패밀리 하우스의 중간값은 41만 달러였다.

매사추세츠 부동산 중개인 연합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MAR)에 따르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6월에 기록한 41만 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달러가 오른 가격이다.

풀 요키스 MAR 회장은 “우리는 40만 달러의 장벽을 조만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며 “그러나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는데 반해 공급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MAR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부동산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은 2004년 이후 최저치였다. 일반적으로 6월은 부동산 거래가 아주 활발한 달이다.

요키스 회장은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물로 나온 주택들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며 “시장에 주택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바로 덩석 사버린다” 고 덧붙였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상담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피보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yinsurance.com
978.314.8818

125 Cambridge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공화당 오바마케어 철폐 시도 또 실패

55대 45로 폐지안 부결, 공화당의원들 폐지 주저하는 모습 역력 부유층 세금, 가입 의무화 조항 폐지하는 '스키니 대체안 시도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철폐 시도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공화당은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 폐지를 숙명처럼 약속해 왔으나 오바마케어를 사실상 철폐하는 것이 현실화되자 결코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연방 상원은 26일 오바마케어 철폐 표결에서 55대 45로 부결했다.

예상보다 많은 무려 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2년 후 오바마케어 대부분 조항을 철폐하는 철폐안 표결에서 이탈해 반대 노선인 민주당 표에 합류했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2015년 같은 폐지안을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5년 같은 안 표결에서는 찬성했으며 오랫동안 안 유권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주장했던 의원들의 최종 선택은 달랐다.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의 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의원은 수전 콜린스(메인) 단 한명 뿐이었다. 과거와 다른 것은 대통령이 오바마가 아닌 트럼프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격렬하게 폐지안의 서명을 주장해왔다. 이 같은 패배에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의 일부 동료들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불

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 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무보험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문제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폐지 대열에서 이탈시킨 핵심적 요소다.

따라서 상원에서 공화당의 폐지안 패배는 결코 충격적인 일을 아니었다. 그동안 의원들은 오바마케어의 폐지에 있어서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현행 오바마 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의존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답해야 한다는 것에 정신이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란 분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폐지 대신 모호

한 선택에만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부치자 25일상원들은 건강보험 폐지안을 논의하도록 한다는 안에는 50대 50의 선택을 했다.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아무도 몰랐다. 이번주 말까지 공화당은 내부 합의를 도출하고 하원과의 합의도 도출한다는 목표다.

그나마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은 "스키니 리필" 로 오바마케어의 일부 핵심조항만을 폐지한다는 것. 예를 들면 가입의무화 조항이나 부유층 세금 부과 등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들만 꼭집어 폐지한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트럼프케어 표결을 주도하고 있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공화·메인)와 잭 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 미국 상원의원

"트럼프 미쳤나봐"... 마이크 감빡한 수전 콜린스 의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상원의원들이 '마이크 끄는 것을 감빡'하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속내를 의도치 않게 드러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 상원 교통주택위원회장과 잭 리드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25일 열린 교통위 청문회 막바지에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콜린스 의원은 청문회가 끝나가자 옆에 있던 리드 의원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마이크 스위치를 끄지 않아 리드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됐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콜린스 의원은 이날 리드 의원과의 대화에서 백악관의 무조건적인 예산 축소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어떤 기준도 생각도 셈법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산 증액에) X표만 쳤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리드 의원도 "옳다. 내 생각에 그(트럼프)는 미쳤다"며 콜린스 의원에게 맞장구를 쳤다. 그는 "절대로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드 의원은 콜린스 의원이 연거푸 예산 문제에 대한 "격정"을 토로하자 "우리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는 마비된다"고 말했고, 이에 콜린스는 "나도 알지만, 그가 예산관리법이란 게 있다는 사실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국토안보부 외의 다른 부처 예산은 괄시한다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것이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해군의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에 올라 구체적 예산 규정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의회가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압박하기만 한 사실을 거론, "여름휴가 뒤 9월에 돌아오면, 우리 백악관에 있는 미친 사람들을 만날 것"이란 대화도 나왔다.

icef08@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Century 21

백악관 배년, 고소득층에 세금 최고 44%부과 구상

블룸버그 "백악관-의회 세율 재조정 합의"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스티브 배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연소득 500만달러(약 56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에는 최대 44%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26일 배년을 잘 아는 측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과세소득 40만 달러 이상이면 39.6%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산층의 세금은 감면하는 대신 고소득층에 30년만에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이 방안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구단주 밥 크레프트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을 듣고선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다. 나도 똑같이 느낀다"며 트럼프는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 개혁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지난 4월 백악관이 공개한 소득세 관련 분석은 최고 소득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당시 백악관은 기존 7개의 세율을 3개로 축소하고 최고 세율은 3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소득 기준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공화당 지도부와 세제개편안의 틀을 수정하기로 합의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세금을 감면할지 혹은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 보완할지 등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다.

미국에서 이른바 '부자 증세' 방안이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연소득 500만불 이상 고소득자에게 4%의 추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힐러리 캠프는 이 방안에 대해 "공평한 분배를 거부하는 납세자들의 실희 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산층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aebae@news1.kr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선임 공보국장

백악관 파벌싸움 증명?...신임 공보국장 엉망진창 트윗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백악관에서 최근 공보국장 자리를 꺾친 정치평론가 앤서니 스카라무치(53)가 백악관 내 '권력 싸움'을 시사하는 의문의 트윗을 남겼다.

스카라무치 백악관 선임 공보국장은 26일 밤 트위터에 "나의 재산공개서가 유출된 중대 범죄에 대해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에 연락하겠다"면서 "오물(swamp)은 라인스 프리버스(백악관 비서실장)"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 트윗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투성이었다. 일단 스카라무치의 재산공개서부터 불법 유출돼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정부윤리청(OGE)로부터 스카라무치의 재산공개서를 받아 이를 공개하기는 했지만 이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누구든 OGE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청구서를 작성하면 일정 기간 뒤 스카라무치의 자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스카라무치는 곧 고위 공직자로 공식 등록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의 자산 내역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될 공적 정보다.

스카라무치가 프리버스 비서실장을 '오물'로 지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폴리티코는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아닌 OGE를 통했음 가능성이 높는데, 스카라무치는 애꿎은 프리버스를 유출자로 지목한 것이다.

미 언론들은 일제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신임 대변인의 혼란스러운 발언"이라고 전했고 비즈니스인사이드(BI)는 "스카라무치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트윗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스카라무치가 이러한 글을 작성한 배경에는 최근 스카라무치와 프리버스 사이에 벌어진 권력 투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프리버스는 스카라무치가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지명되기 이전 그의 지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사람 사이 불화설이 불거졌고 스카라무치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린 좋은 친구"라며 이를 일축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폴리티코 등 일부 언론들은 스카라무치가 프리버스의 비서실장 자리를 대체할 후보자로써 내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번 트윗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의 필립 러커 기사는 "스카라무치와 프리버스 사이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트윗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최근 백악관 내 일부 세력이 프리버스가 (탄성적인) 정보 유출자임을 믿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



스티브 배년 백악관 수석전략가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MICROBLADING & PERMANENT MAKEUP

반영구 메이크업
 자연눈썹
 아이라인
 입술

MA Licensed permanent cosmetics Artist

Jin 978.935.1395
 52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We Help Good Business Become Great

LEE AND YUN INTERNATIONAL BUSINESS CONSULTING

We find more buyers and sellers for you. We also offer a wide range of matching services to recruit the best international candidates for your company. We've got the necessary tools and expertise to help you grow your business, and learn how to properly manage your expansion, or your next project. We partner with our clients to develop engaging marketing strategies, design high quality and scalable solutions, and build rich brand experiences.

781.854.7608(USA) 070.4239.7608(Korea)
www.leeandyun.com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GM·포드 실적이 예고한 美 자동차 시장 내리막길

GM "각종 프로젝트 축소"...포드 "매출전망 하향"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제네럴 모터스(GM)와 포드가 나란히 매출 전망을 하향하며 미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미국 2대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는 판매가 급감한 미국 시장에 만 의존해 문제가 더욱 악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은 8년만에 처음으로 판매가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GM과 포드의 내수 시장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포드의 밥 쉐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이날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판매로 올린 모든 매출은 사실상 북미 지역에서 거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북미지역에서 2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한 GM도 비슷한 상황이다.

포드는 2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을 웃돌았으나 같은 기간 북미 지역에서 올린 세전 수익은 크게 하락했다. 포드 북미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년 전 11.3%에서 9%로 줄었다.

블룸버그는 "미국 내 일반 승용차(세단)의 수요 급감이 스포츠유틸리티(SUV)와 픽업트럭의 강한 수요를 압도하고 있는 영향"이라며 "부진한 미국 시장에 대한 계속된 의존은 이들 회사의 전망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모닝스타의 데이비드 위스턴 애널리스트는 "북미 지역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양사의 주요 수익 동력원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들의 리스크는 '미국 시장이 아직은 비교적 견제하다는 것'과 '유가가 현재 수준처럼 계속 낮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험 징후는 벌써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GM의 신형 SUV와 트럭을 생산하는 미국 현지 공장은 12주 이상 가동이 중지됐고 이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GM은 쉐보레 크루즈나 말리프와 같이 판매가 둔화하고 있는 모델들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 해당 모델의 생산라인도 축소하고 있다. 또 앞서 몇 주전에는 앞으로 예정된 각종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겐하임의 엠마누엘 로스너 애널리스트는 투자노트에서 "GM의 주요 사업인 자동차 사업부문의 실적은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것도 북미 지역에 크게 기대고 있는 GM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GM과 포드의 2분기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상회했으나 발표 당일 주가는 모두 내렸다.

baebae@news1.kr

미국 자동차 판매 구성



자료 Autodata



페이팔 어닝 서프라이즈... 상품에서 플랫폼으로 변신

모바일 결제 50% ↑ ...실적 전망 또 다시 상향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페이팔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모바일 결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페이팔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페이팔이 적극적으로 전략적 제휴에 나선 점도 결제를 증가시켰다.

26일 페이팔은 2분기(4~6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2% 늘어난 4억 1,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0.46달러로, 시장예상치(0.43달러)를 웃돌았다.

전체 매출은 18.3% 늘어난 31억 4,000만달러다.

페이팔은 전략적 제휴 및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페이팔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카드사뿐만 아니라 구글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안드로이드페이 등과 제휴를 맺었다. 또한 이달 초부터 애플의 결제 서비스와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애플과 경쟁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페이팔은 브레인트리(Brain-tree), 벤모(Venmo), 원터치(One Touch), 줌(Xoom)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 간 송금,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페이팔의 활성 사용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어난 2억 1,000만명을 기록했다. 페이팔의 모바일 결제량은 50% 증가한 360억달러로 집계됐다. 페이팔은 전체 활성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거래한다고 밝혔다.

페이팔의 전체 거래량은 23.5% 급증한 1,064억 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페이팔은 올해 실적 전망을 또 다시 상향했다. 주당 순이익 전망을 1.80~1.84달러 수준으로 기존(1.74~1.79달러)보다 높여 잡았다. 올해 매출 역시 127억 7,500만~128억 7,500만달러로 기존(125억 2,000만~127억 2,000만달러)에 비해 상향했다.

hemingway@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촛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수잔 안 부동산



"TOP PRODUCER"
#1 Agent Million Sales



'Top-Producer'의 Know-how로
고객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ell: 339.224.1512

안수잔의 '고객 만족 최우선' 서비스

- 집 빠르게 팔고 사고
- 최고가격, 최고 서비스
- 건물 투자 상담



가격인하

Newton Centre, Newton \$ 1,349,900
보기드문 전망좋은 투자 지역, 뉴턴 센터 지하철 도보 7분거리,
방5개, 화장실 4.5개, 3개의 출입구. 하숙하기에 좋은 위치.



Newton 2 Family \$749,900
2가구 세들어 있음, 총 수입 약 55,000,
대지 면적 6555 sq.ft, 년Tax \$5664



Newton \$1,300,000
2가구입주, 연수입\$84,500, 대지면적9229sq ft,
업데이트 많이 되어 있음,
렌트하기 좋은 위치(T 근처), 보스턴칼리지



Newton \$1,999,000
2013년 새집, 최고 학군, 주거면적 5857sq ft,
대지면적 10990 sq ft, 방5개, 화장실5.5개
Energy Star, Finished Basement,
Newton South High school



Burlington \$ 589,000
2013년 새집, 방3개, 화장실 2.5개,
주거 면적 2000sq ft, 대지 면적 4775 sq ft,
H mart 상권 근접.



Boston Fenway \$ 364,000
방 1개, 화장실1개, 주거면적 576sq ft,
콘도 fee \$ 298 (Heat, Hot water포함)
보스톤 중심의 대학가, T Station, 공원, 박물관.



Winchester \$1,390,000
2013년 새집 최고의 학군 방4개 화장실 4.5개
주거면적 4000sq ft, 대지면적 17548sq ft,
마루 바닥, 최고의 학군, 편리한 교통

"TOP 에이전트가 TOP으로 모십니다"

Centre Realty Group
1280 Centre St, Newton Centre, MA
460 Main St, Watertown, MA

라면시장 지각변동... '갯뚜기' 돌풍에 절대 강자는?

가격 올린 농심 vs 10년째 동결한 오뚜기

농심, 5년만에 점유율 50% ↓ ...프로모션으로 점유율 지키기 '총력'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굳건했던 농심의 라면시장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절대 강자지만 판매량이 주춤하면서 점유율이 낮아졌다. 대신 '갯뚜기'라는 별명이 붙은 오뚜기가 영향력을 확대했다.

가격 결정이 농심과 오뚜기의 라면 판매량 흐름을 바꿨다. 농심은 지난해 말 가격을 인상했지만 오뚜기는 10년째 가격을 동결했다. 오뚜기는 '착한 기업' 이미지까지 얻으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변동이 적은 라면시장의 특성상 농심의 시장 지위는 유지되었지만 점유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농심은 주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여름철 인기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점유율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27일 시장조사전문기관 닐슨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농심의 지난 5월 라면 시장 점유율(판매수량 기준)은 49.4%를 기록했다.

농심의 시장점유율이 50% 아래로 낮아진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여 만이다. 당시 '꼬꼬면' 등 하얀 국물 라면 열풍이 불면서 일시적으로 농심의

시장점유율이 50% 아래로 하락했다.

이후 농심은 점유율 50%를 회복했지만 하락 추세다. 2014년 시장점유율은 58.9%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3.9%까지 낮아졌다. 대신 오뚜기 점유율이 18.3%에서 23.2%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25.2%까지 상승했다.

판매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부분은 가격이다. 농심은 지난해 12월 라면 가격을 평균 5.5% 인상했다. 반면 오뚜기는 2008년 라면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이후 10년째 동결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올해도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뚜기 제품으로 이동한 것이다. 삼양라면도 지난 5월부터 가격을 평균 5.4% 올렸다.

업계 관계자는 "농심과 삼양라면 등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뚜기 라면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했다.

농심이 이렇다 할 신제품을 못 내놓은 것도 아쉬운 점이다. 주력 제품인 신라면이 있지만 새로 내놓은 '보글보글 부대찌개면'과 '콩나물 떡배기' 등의 성격이 다소 부진했다.

오뚜기는 최근 청와대의 기업인 초청에 중견기업 중 유일하게 포함됐다. 재계순위가 100위권 밖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상속세 납부와 비정규직 채용, 가격 동결 등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는 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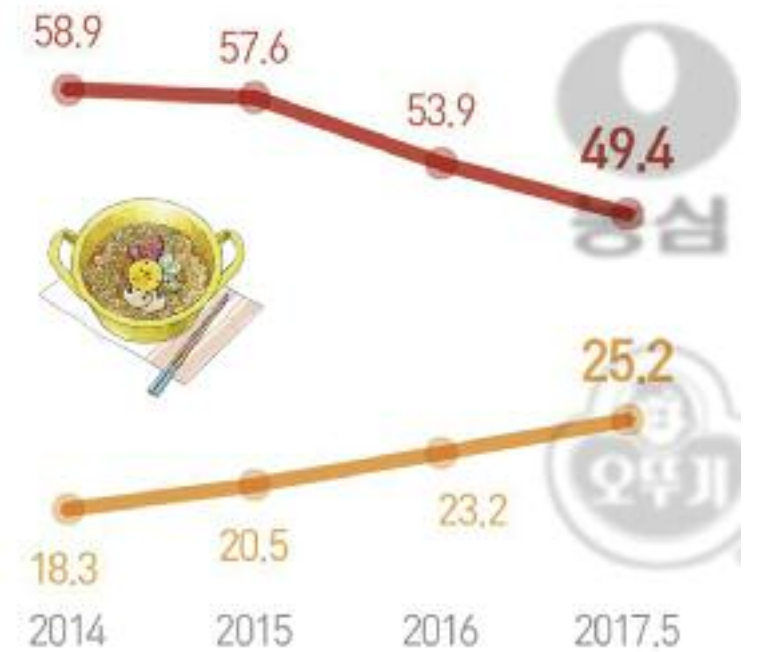
소비자들은 오뚜기에 대해 갯뚜기라고 별명을 붙였다. 오뚜기 제품을 선호하는 충성 고객들도 늘어났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 오뚜기만큼 이슈 기업이 없다"며 "온라인에서는 오뚜기 제품을 구매하자는 글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했다.

농심도 오뚜기의 돌풍에 대해 인정했다. 농심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와 맞물려 오뚜기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심은 판매량이 아닌 가격적 요소를 적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심이 조사한 올 상반기 점유율은 55.8%다. 오히려 지난해 상반기(54.1%)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오뚜기 점유율은 22.4%로 1년 전 같은 기간(23.8%)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판매량은 오뚜기가 늘었지만 라면

라면 판매량 추이 ■ 농심 ■ 오뚜기 단위 %



가격이 비싼 농심이 금액적으로 더 우위를 점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농심의 시장 점유율이 9월까지 추가로 하락할 수 있지만 연말이 되면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심 관계자는 "하절기 비빔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이라며 "10월이 되면 낮아진 점유율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했다. 업계에서는 농심의 절대 우위를 점하면서도 점유율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농심의 점유율 하락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판매량만 놓고 보면 더 떨어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文대통령, 기업 잘돼야 나라 잘돼...재계 일자리·상생 화답

文대통령-기업인들 155분 간담회... "허심탄회 대화하자"

(서울=뉴스1) 김현,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과의 27일 간담회가 2시간 35분여만에 마무리됐다.

당초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75분을 예정했지만, 실제 간담회는 이보다 1시간 20여분을 훌쩍 넘겨서 진행돼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이틀로 나눠서 열리는 간담회 중 첫째 날인 이날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규 금융위원장이 참여했고, 청와대에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함께 했다.

청와대는 이번 간담회를 진정한 소통의 자리로 만들기 위해 기업인들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은 물론 과격적인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와대가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편한 복장을 권했던 만큼 참석자들

은 대부분 편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은 공식 만찬에 앞서 상춘재 앞뜰에서 선 채로 20여분간 '호프미팅'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호프미팅 모두발언에 "경제인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건 새 정부 들어서 처음"이라고 운을 뗀 뒤 "역대 정부마다 경제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식사를 해왔는데 정부로서는 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만남들을 보면 한 번에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 만남 자체가 좀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느낌인 게 없지 않았다. 저는 경제인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남을 두 번으로 나눴다"며 "주어진 각본도 없고, 정해진 주제도 시간도 없다. 자료나 수첩 같은 게 없어도 되고 편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자는 뜻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잘 돼야 나라 경제가 잘 된다. 국민경제를 위하여,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하여"라며 건배사를 외쳤고, 기업인들도 일제히 "위하여"를 외쳤다.

이어진 호프미팅에선 야구와 테슬라, 피자

등 가벼운 얘기부터 부동산, 대중국 수출의 어려움, 자동차 배터리 등 다소 무거운 주제까지 대화를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에게 "요즘 중국 때문에 자동차(수출이) 고전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떠냐"고 물었고, 박정원 두산 회장에게는 "야구 선수를 좀 하셨다고 하더라"며 말을 건넸다. 금춘수 한화 부회장에게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했고, 구본준 LG 부회장과는 구 부회장의 별명인 '피자 CEO'를 화제로 올렸다.

문 대통령은 손경식 CJ 회장에게는 "경제계에서 만능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친근감을 표했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는 미국

의 철강제품에 대한 반(反) 덤핑 관세 부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중견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초대된 함영준 오뚜기 회장에게는 직접 '갯뚜기'라고 언급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잘 부합하는 그런 모델 기업"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물었고, 국내 테슬라 1호 고객인 정 부회장의 전기차를 매개로 구 부회장 등 다른 기업인들과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중국 측의 제재에 따른 어려움과 관련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gayunlove@news1.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기업인들과 '호프 미팅' 을 갖고 맥주잔을 들고선 담소를 나누고 있다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L. 28 - AUG. 3, 2017

BULGOGI HAMBURGER Transform your bulgogi into a burger!

H마트가 소개하는 신개념 퓨전음식, 불고기 버거! 육질이 살아있는 맛있는 불고기와 신선한 야채가 만나 재탄생한 퓨전 버거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 Korean Melon** 참의 **\$16.99** box (FRI/SAT/SUN ONLY 28/29/30 ONLY)
- Ginger** 생강 **\$1.49** lb.
-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4.99** ea.
- Packed Garlic** 맥아늘 **2\$3** pkg./for
- White Nectarine** 화이트 넥타린 **\$1.99** lb.
- Nagaimo** 일본 마 **\$5.99** lb.
- White Peach** 백도 **\$1.99** lb.
- Washington Red Cherry** 워싱턴 체리 **\$1.99** lb.
- Gobo** 우임 **\$1.99** lb.
- Dragon Fruit** 드레곤 플러 **\$3.99** lb.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oneless Pork Loin for Outlet**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lb.
- Boneless Chicken Breast** 뼈없는 닭가슴살 **\$2.49** lb.
- Beef Heel Meat** 스테이크 **\$6.99** lb.
- Beef Brisket Chunk** 양지머리 **\$10.99** lb.
- Sliced Beef Chuck Eye Roll for Bulgogi** 냉동 소갈고기 **\$6.99** lb.
- Marinated Pork (T) Butt Steak** 양념 돼지 목살 스테이크 **\$4.99** lb.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TONGTONGBAY Premium Dried Croaker** 동통베이 냉동 굴비 **\$14.99** 2.5 lbs./pkg. (FRI/SAT/SUN ONLY 28/29/30 ONLY)
- Head-on Louisiana Shrimp** 머리있는 루이지애나 자연산 양새우 **\$6.99** lb. (FRI/SAT/SUN ONLY 28/29/30 ONLY)
- Roasted Eel Unagi** 두나기 **\$7.99** 10oz./pkg. (FRI/SAT/SUN ONLY 28/29/30 ONLY)
- Cooked Mussel Meat** 칠리산 홍합살 **\$3.99** lb. (FRI/SAT/SUN ONLY 28/29/30 ONLY)
- Frozen Octopus** 냉동 문어 **\$5.99** lb. (FRI/SAT/SUN ONLY 28/29/30 ONLY)
-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6.99** lb. (FRI/SAT/SUN ONLY 28/29/30 ONLY)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HITOMI Gold California Short Grain White Rice** 히토미 골드 쌀 **\$19.99** 15 lbs.
- KWANGCHUN Green Tea Seaweed Layer** 광천 농협 녹차김 **\$9.99** 12oz. x 12ea./box
- SPAM** **2\$5** can/for
- CJ Cooked White Rice** CJ 흰쌀 밥 **\$12.99** 7.4oz. x 12ea./box

천년 김치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 DANBA Soba Soyuz** 당바 소스 **\$3.99** 10.7oz.
- CJ Oyster Sauce** CJ 오징어 다시다 **\$9.99** 2.2 lbs.
- HAOREUM Canned Boiled Mackerel Pike** 해오름 콩피 통조림 **2\$3** 14.1oz.
- PULMUONE Cold Noodles** 풀무원 냉면 **\$4.99** All Varieties - 7oz. - 30ea.
- CHINGSOO Oriental Style Noodles** 청수 올냉면 **2\$7** 25.4oz.
- SOUP STOCK** 맛스레 전지 냉면 복수 **\$4.99** 11.8oz. x 5ea./box
- OVERSEASIN Crab Sticks** 대립선 게맛살 **2\$3** \$4.99
- HAOREUM Dumpling** 해오름 만두 **\$4.99** 2.65 lbs.
- HAN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한림 즉석 상계탕 **\$9.99** 25.2oz.
- HAI TRAI Peanut Crunch Snack** 해대 맛동산 **\$2.99** 11.46oz.
- SANGARA Ramune Drink** 상가리아 라무네 드링크 **\$5.99** All Varieties - 7oz. x 12ea./box
- BOUNTY Paper Towel** 바운티 페이퍼 타월 **\$13.99** 18 rolls/pkg.
- Bean Bag Egg Chair** 계란 모양 의자 **\$64.99** +\$69.99
- Ice Breaker** 라이프 아이스 빙수기 **\$6.99** +\$9.99
- LIVING GLORY Naengmyeon Bowl** 리빙글로리 냉면기 **35% OFF** \$5.99 +\$9.9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pric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2017 H-MART INC.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당정 '초고소득 증세' 공감... 고용증대 세제 신설

(서울=뉴스1) 김수완, 이정호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과 서민·중산층, 영세 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당이 주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 증가, 일자리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고 △영세 음식점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장려금 역시 인상된다.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등 소득 재분배 관련 방안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그 동안 논의됐던 '초대기업·초고소득 증세' 관련 입장을 정부에 재차 전달했다.

김 의장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초고소득자·초대기업 과세 정

상화와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 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국민소득 종합과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저성장, 양극화가 고착되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대통령 선거 공약을 충실히 반영해 이행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데서 크게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오늘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원활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여

당의 의견을 수렴해 곧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무렵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abilitykl@news1.kr

'초고소득 증세' 본격화...보유세, 8월 종합대책에 포함되나

8월2일 세법개정안...중순께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 "당정, 보유세 ↑ 공감대...내용·시기 온도차"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의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도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이 법인세와 소득세로 증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세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어 증세 논의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 사이 온도차가 있어 내용과 시기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최고 구간 세율을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현재 명목세율 인상에 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을 내용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소득 5억원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 42%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이 기정사실

화된 상황에서 관심사는 증세 대상이다. 특히 다음 달 세법개정안뿐 아니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도 예정돼 있어 증세 대상에 부동산 세제도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는 그간 개편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다. 보유세는 지금보다 높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보다 1.2%포인트 높고 보유세는 0.8%로 평균(1.1%)보다 0.3%포인트 낮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이 낮은 구조"라고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거래세 인하보다는 보유세 인상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서는 빠졌긴 했으나 (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이 가능성이 더 높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정부와 청와대가 목표로 하는 시장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유력한 카드"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과 공시 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와 청와대는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유세를 포함해 폭넓은 세제 개편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조세 저항이라든가 부동산 세제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의원 개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유세에 대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과거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 작업이 진행되다 중단됐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내에서도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우원식 '국민·바른, '증세반대' 한국당과 왜 같은 배?

"초고소득 증세' 안철수·유승민 공약과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1) 김수완, 성도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초고소득 증세' 관련 당정협의를 앞두고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까지만 적정 과세와 조세 개혁에 동의하는 듯 하더니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고 하느냐"라며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분리 대응' 전략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이 한 약속은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며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고

우 원내대표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위축되고 경제에 악순환을 시킬 것이라는 재계와 한국당의 편에 서서 주장을 편다"며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 회복 공약은 눈속임이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법인세 25%를 과세하겠다는 법안은 왜 낸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 법안은 민주당의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 법안이며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공약

만 5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의 '쿠데타를 하듯이 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전 대표의 공약, 김 원내대표의 법안, 유 의원의 중복지 중부담 공약은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여야정 협의체 공식 논의 자리에서 조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호프타임'을 언급하면서 "재계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를 위해서 합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p>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p>	<p>제이슨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p>	<p>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p>	<p>줄리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p>	<p>비비안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p>
--	---	---	--	--

NEW LISTINGS				LISTINGS	
<p>Residential</p> <p>Single Family</p> <p>4 Sorens Way Bedford, MA 5 Bed, 3.5 Bath, 5,200 sf, Cut-de-sac. Open house this Sat, Sun Between 12-2pm Asking \$1,699,000</p>	<p>Residential</p> <p>Condo</p> <p>10 Nantasket Ave, Brighton MA 2 Units. Brighton Center에 위치. 2016년 Gut renovated Condos. 2bed 2bath및 Garage. 파킹, T- Stop과의 거리는 0.3 마일 이내 Asking \$691,000, \$999,000</p>	<p>Commercial</p> <p>살롱 & 스파</p> <p>Roslindale에 위치. 1,200 S.F. Rent \$2,500 Asking \$4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Plymouth 센터에 위치, Full liquor, Lots of foot traffic, great exposure, recently renovated. Asking \$450,000</p>	<p>1. Full Plant 플리너 : 렉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M SOLD</p> <p>2. Full Plant 세탁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p> <p>3.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p> <p>4. Full Plant 세탁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p> <p>5. 드롭오프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p> <p>6. 보스턴 인근 일식당 : Asking \$225,000 SALE PENDING</p> <p>7. 렌트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3,400 RENTED</p> <p>8. Single family : 22 Willow park, Wellesley SOLD</p> <p>9. Condo : 20 Hosmer st, unit 1, Watertown SOLD</p> <p>10.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p> <p>11. 미림 식품 : Allston SOLD</p> <p>12. Single Family : 64 Oak St, Newton SOLD</p> <p>13. Condo : 47 Homer ave Unit 5-3 Cambridge SOLD</p> <p>14. Condo : 47 Gordon St, Unit1 Allston SOLD</p> <p>15. 렌트 : 12-16 Ellery St, Unit 603 Cambridge RENTED</p> <p>16. 렌트 : 11 Hibbert St, Lexington RENTED</p> <p>17. 렌트 : 156 Porter St, Unit 236 East Boston RENTED</p> <p>18. Single Family : 6 Sorens Way Bedford SOLD</p> <p>NEW Full Plant 세탁소 : 보스턴 인근 North Shore, 연매상 \$190,000 Asking \$165,000</p>	
<p>Commercial</p> <p>한식&일식 식당</p> <p>보스턴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일식당</p> <p>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120,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컨비니언스 스토어</p> <p>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비즈니스 콘도</p> <p>Brookline 현재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09,000 <small>Price Reduced</small></p>	<p>Commercial</p> <p>한국식당</p> <p>보스턴 남부에 위치 Full liquor,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Asking \$140,000</p>	<p>Commercial</p> <p>세탁소</p> <p>보스턴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p>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보경: 508.361.6064 줄리 전: 978.494.2043 비비안 유: 617.935.2713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석방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위증만 인정 김상률,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김종덕 징역2년

(서울=뉴스1) 윤수희, 김일창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고 청와대

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헌법과 문화진흥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장관, 비서관 등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누구보다 철저히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국회 위증 혐의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해 다수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세 사람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본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 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원 배제명단은 김 전 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를,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판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공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어서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ysh@news1.kr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36명 승진·전보,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법무부는 2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석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을 승진시켰다.

문재인 정부 첫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19기)이,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 부산지검장(19기)이,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20기)이,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기)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20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보직 감축 논의와 관련해 대전고검 차장검사 및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승진 적격 심사를 거쳐 고검검사급 검사 중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연수원 22기 3명과 이정희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 9명을 새롭게 발탁, 대검 검사급 보직에 보임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23기)가, 범죄예방정책국장에는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23기)가 각각 임명됐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2기)가 임명됐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23기)가, 강력부장에는 배성

범 안산지청장(23기)이, 공판송무부장에는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23기)가, 과학수사부장에는 이정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23기)가 각각 배치됐다.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강남일 국회 전문위원(23기)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구본선 광주지검 차장검사(23기)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는 오인서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3기)가 각각 임명됐다.

춘천지검장에는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2기)을 발탁했다. 이는 역대 두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다. 울산지검장에는 박윤해 서울고검 검사(22기)가 보임됐다.

법무부는 여성 검사 고위직 확대와 관련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들의 검찰 고위직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장들의 자리 이동도 있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했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함으로써 검찰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2기)이, 공안 사건을 총지휘하는 공안부장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2기)이, 기획조정부장에는 차경환 서울고검 차장검사(22기)가 각각 발령됐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희 문건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21기)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총장 직속으로 반부패 수사를 맡았던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21기)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전국 지방검찰청 수장들도 대폭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조희진 의정부지검장(19기)이,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최종원 춘천지검장(21기)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안상돈 대전지검장(20기)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신유철 수원지검장(20기)이 각각 전보됐다.

의정부지검장에는 김희재 광주지검장(20기)이, 인천지검장에는 공상훈 서울서부지검장(19기)이, 수원지검장에는 한찬식 울산지검장(21기)이, 대전지검장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22기)이 각각 전보됐다.

청주지검장에는 이석환 제주지검장(21기), 부산지검장에는 장호중 전주지검장(21기), 창원지검장에는 김영대 대검 과학수사부장(22기), 광주지검장에는 양부남 대검 형사부장(22기), 전주지검장에는 송인택 청주지검장(21기), 제주지검장에는 윤용걸 대검 기획조정부장(21기) 등이 자리를 옮겼다. cho84@news1.kr

與野,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적폐청산 1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야 의원 130명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당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지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현직 장관 등 현실적 신분·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의 의원이 힘을 보탰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국정농단 재발을 막고 최씨와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변 인물들이 부당하게 쌓은 재산을 몰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 조사 신청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검증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 소급해 국가에 귀속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dhspeople@news1.kr



PR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돼지공: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Agent/상담원 모집

TEL_617.466.2212 TOLL FREE_888.604.2190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전문 & 성형 외과 전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전문 & 성형 외과 전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158 Everett Ave. Unit 3 Chelsea, MA 02150

LEXUS REX

정재훈 대표원장

부가세 관련 정보

김수남

1-844-DOJURUM 11-844-364-872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HITRONS MASSAGE CHAIR & MATTRESS

MA 매장 방문하시는분께 30불 상당의 김치통 무료증정 8월 30일까지 / 한가정당 1개

이태리 최고 명품 매트리스 전시장 하이트론스 보스톤 지점 오픈

\$100 Discount 24개월 무이자 할부

DOLCE VITA COLLECTION COMFORT DUAL 9 FIRM



KING	\$2699	\$2499
QUEEN	\$2299	\$2099
FULL	\$2099	\$1899
TWIN XL	\$1699	\$1499
TWIN	\$1649	\$1449

LEVEL OF COMFORT: FIRM / EXTRA FIRM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

\$100 Discount 24개월 무이자 할부

SUPREMO COLLECTION DIAMANTE DUAL 14



KING	\$5299	\$5000
QUEEN	\$4399	\$4100
FULL	\$3799	\$3500
TWIN XL	\$2999	\$2700
TWIN	\$2899	\$2600

LEVEL OF COMFORT: MEDIUM SOFT / SUPER SOFT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

\$100 Discount 24개월 무이자 할부

MAGNISTRETCH 12



KING	\$3599	\$3399
QUEEN	\$2999	\$2799
FULL	\$2699	\$2499
TWIN XL	\$2199	\$1999
TWIN	\$2099	\$1899

LEVEL OF COMFORT: MEDIUM SOFT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



“ 성장기 자녀들에게 천연소재와 친환경을 위해 스프링이 없고 20년 이상 사용할수 있는 최고의 매트리스를 선물하세요 ”

목걸레 청소기의 종결자!

SHINIL

롤링턴 신일 트윈회전 스팀청소기 (rollingsturn) \$290 / \$265

es330 무선 마루걸레 청소기 \$280

es200 유선 마루걸레 청소기 \$220 / \$139

THE NEW SWING-7000 \$179

삼성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전문 수리기술자상주

대우 오픈기념 대세일 김치냉장고 Special Gift 기간 : 7월 30일까지

Samsung zipel, 님채, DAEWOO Klasse

2016년 신제품 출시로 더욱 성능이 우수한 누리아이 5800

- 스마트폰 및 컴퓨터 과다 사용으로 침착하고 행복한 눈
 -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노안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된 분
- “ 눈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머릿도 맑아집니다 ”



이온화 장치로 구비한 샤워기

기적의 이온 샤워기

살아 있는 물, 건강한 물, 기적의 이온 샤워기

\$230 (정가 \$280)

이온화, 여드름, 건성피부, 무릎 치료에 탁월하며 이온기능이 더욱 풍부한 2017년 신제품 출시 OLD 가격 \$399 크레딧도 드립니다.



Health Mate 반신욕기

SALE \$2500 / \$2000

무릎사우나 무릎인구 초침 가능

SALE \$750 / \$500

HITRONS MASSAGE CHAIR & MATTRESS

전지역 무료 배송

보스톤지점
Grand Opening

전신 마사지와 효과를 입증한 **[이나다안마의자]**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속 혈관을 자극해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도 좋아 많은 의사분들이 선호하고 추천하는 마사지 체어입니다.



Inada Dreamwave
일시불 구입시
Hitrons Gift Card
\$800 무료증정
(7월 30일까지)

Made in JAPAN

치료기능이 더욱 강력해진
이나다 2017년 NEW Dream Wave 출시



DREAMWAVE
\$194/48M + Tax
36개월 무이자

NEST
\$7,900
\$6,000
24개월 무이자

FLEX 3S
\$7,500
\$4,300
12개월 무이자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된
이나다 안마의자의
놀라운 효능

1 열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근육속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자극해 혈액순환 개선 및 림프마사지 기능으로 노폐물 제거 효과 및 손가락 끝 및 발가락 끝의 모세혈관까지 자극을 시켜 당뇨환자에게 효과.

2 근육 통증 및 수축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노화로 수축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경직된 신경을 풀어주고 첨단 센서로 지압점을 정확히 찾아 뭉친 부위를 해소시켜 주어 근육통증을 해소.

3 목과 어깨 등의 탁월한 안마기능
특수 제작된 베개 타입 에어백 유닛으로 경추 및 승모근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안마해주며 Human 안마 기법으로 사람의 손과 같은 동작으로 부드럽고 정확한 마사지.

4 불면증 해소
106개의 에어백이 온몸의 신경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을 해소시켜 불면증 해소에 탁월한 기능.

5 체형 및 골반 교정 기능
목 아래 경추부터 요추까지 뼈를 둘러싼 근육들의 마사지로 수축된 근육을 풀어주어 활상화시켜 뼈를 지탱하는 힘을 강화시켜 척추 교정 기능. 골반 아래 부분의 더블 에어 콤파레셔로 리더미컬한 안마기능 및 체형 교정 전문가들의 교정기법, 탑재된 특수 스트레칭 기능으로 골반 교정 및 척추 교정 기능.

이나다 안마의자
체형교정
골반교정
탁월한 효과!



ORDER NOW www.hitrons.com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빌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201-417-5350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점 몰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 201-417-5350
(아비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201-417-5350 / 571-235-7900
(Lotte Plaza Market (Ellicott City))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Patrick Thomas
617.935.4049



William Glanton
978.394.2017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17 Storey Drive, Lincoln, MA 01773
Asking: \$1,529,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 Clara Paik



Just Listed: Condominium
26 Broad Street #101, Marlborough, MA
Asking: \$355,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31 Arlington Road # 5, Woburn, MA
Rental Price: \$ 1,850/ mo
Listing Agent(s):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 BR: 1 BA: 2
273 Commonwealth #3, Boston, MA
Rental Price: \$7,000 /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Just Listed: Rental | BR: 2 BA: 2
295 Salem Street #29, Woburn,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Clara Paik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Al Magurn
508.733.2949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33 Winter Street, Belmont, MA
Asking Price: \$949,000
Listing Agent(s): David Oliveri



Just Listed: Condominium
111 Brigham #1D, Hudson, MA
Asking Price: \$272,000
Listing Agent(s):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666 Mass Ave #36, Boston, MA
Rental Price: \$1,915/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41 Payson Road #1, Belmont, MA
Rental Price: \$2,70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Just Listed: Rental | BR: 2 BA: 1
216 Rindge Ave #4, Cambridge, MA
Rental Price: \$2,400/ mo
Listing Agent(s): Ping Bai



Just Listed: Rental | BR: 1 BA: 1
100 Station Landing #1005, Medford, MA
Rental Price: \$2,350/ mo
Listing Agent(s): Steven Son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Johanna Parlon
978.501.4753



Tianna Johnson-King
336.392.7838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패츠 선수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7 정규 시즌이 시작하려면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지만, 27일 트레이닝 캠프의 시작과 함께 공식적으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2017 시즌이 시작된다.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할 때 패트리어츠 로스터에는 90명의 선수들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8월 말에 로스터에 남아 있는 선수는 단 53명이다. 지금은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한 달 뒤에는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전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선수는 물론이고 이미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패트리어츠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선수들을 살펴보자.

Cyrus Jones, CB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중압감은 사이러스 존스가 지난해 악몽과도 같은 루키 시즌을 보낸 뒤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존스는 패트리어츠가 지난해 드래프트에서 선택한 첫 선수였다. 그러나 존스는 리그 최악의 리터너로 꼽히는 등 순탄치 않은 루키 시즌을 보냈다.

존스는 스페셜 팀에서 믿을 수 있는

펀트/킥 리터너로 거듭나거나, 코칭 스태프를 설득 시켜 원래 자신의 포지션이었던 코너백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신에 코너백 포지션으로 돌아간다면 NFL 최고 코너백인 말콤 버틀러, 스테판 길모어와 포지션 경쟁을 해야 한다.

올해 오프시즌 동안 로건 라이언이 떠났기 때문에 주전 코너백 자리는 한 자리가 비어 있다. 존스가 이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패트리어츠에 필요한 선수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

Dwayne Allen, TE

드웨인 앨런은 패트리어츠의 넘버2 타이트 엔드 역할을 위해 영입되었다. 지난해 마텔러스 베넷이 맡았던 역할로, 베넷은 수퍼볼 우승 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였다.

그러나 앨런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앨런은 봄, 여름에 진행되었던 패트리어츠 팀 활동과 미니캠프에서 계속해서 패스를 놓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보호 패드를 착용하지 않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이 진행된 연습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한 것이다.

앨런에 대한 우려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시즌 개막 전까지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레드존 최고의 타이트 엔드로 꼽히는 앨런이 로



사이러스 존스는 지난해 최악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자신이 패트리어츠에 필요한 선수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스터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

Stephon Gilmore, CB

연봉에 대해서 인색하기로 유명한 패트리어츠가 4년-6,500만 달러에 스테판 길모어와 계약을 성사 시켰을 때 모든 이들이 깜짝 놀랐다. 특히 프리에이전시 시장이 열리자마자 거액을 들여 길모어를 영입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가 얼마나 길모어를 원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연평균 연봉으로 추정했을 때 길모

어는 패트리어츠 팀 내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수비 선수이고, NFL 전체에서 8번째로 연봉이 높은 코너백이다.

길모어는 봄, 여름에 진행되었던 패트리어츠의 트레이닝 캠프에서 발군의 실력을 선보였다. 그러나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는 만큼, 기대치도 높다. 길모어에 대한 기대치는 단순히 잘하는 코너백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상대 선수를 압도하는 코너백이다.

Stephen Gostkowski, K

아직까지 패트리어츠는 스티븐 고

스쿠우스키와 경쟁할 다른 키퍼를 영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 데뷔 이후 지난해 최악의 시즌을 보낸 코스쿠우스키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올해 33세인 고스쿠우스키는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만 잠깐 슬럼프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잠깐 지나가는 슬럼프가 아니라 노화에 따른 하락세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패트리어츠는 빠르게 고스쿠우스키에 대한 처우를 결정할 것이다. jsi@bostonkorea.com

오승환, 콜로라도전 1이닝 퍼펙트...추신수, 12G 연속 출루

(서울=뉴스1) 정명익, 권혁준, 맹성호 기자 =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3경기 만에 출전해 여전한 강속구를 자랑하며 퍼펙트 이닝을 기록했다.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볼넷으로 연속 경기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결장했다.

오승환은 26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에서 10-5로 앞선 9회초 등판,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3경기만의 등판. 오승환은 단 12구로 삼자범퇴를 만들어냈다. 오승환의 평균자책점은 3.89에서 3.80으로 소폭 하락했다.

세인트루이스는 멧 카펜터와 폴 데용, 야디어 몰리나 등 중심타자들의 활약에 8회까지 10-5로 크게 앞섰다.

5점차 리드를 안은 9회초, 오승환은 경기를 마무리짓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오승환은 첫 타자 트레버 스토리부터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는 1볼 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깔끔하게 시작한 오승환은 라이언 해니건에게 153km의 직구를 뿌리면서 유리한 볼카운트를 만들었다. 결국 오승환은 3구째 3루 땅볼

을 이끌어내 2아웃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결정구는 슬라이더였다.

대타 팻 발라이카도 마찬가지로였다. 오승환의 강속구에 발라이카는 연이어 방망이를 헛돌렸다. 2스트라이크를 잡은 오승환은 5구째 높은 코스의 150km 직구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3연승을 질주한 세인트루이스는 50승51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4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반대로 3연패에 빠진 콜로라도는 58승45패로 같은 리그 서부지구 3위에 그쳤다.

추신수는 두 차례 볼넷을 골라내며 출루 본능을 자랑했다.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6타석 4타수 무안타 1득점 1타점 2볼넷을 기록했다.

이로써 추신수는 지난 16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부터 12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했다. 전날 멀티 히트의 기세는 잊지 못하면서 시즌 타율은 0.248로 소폭 하락했다.

추신수는 1회부터 볼넷으로 1루를 밟았다. 엘비스 앤드루스의 2루타 때 3루까지 향한 추신수는 노마 마자라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았다.

하지만 추신수는 이후 쉽게 나가지 못했다. 3회에는 1루 땅볼, 5회말에는 삼진이었다. 6회 3번째 타석에서도 그는 2루 땅볼에 그쳤다.

텍사스가 5-18로 크게 뒤진 가운데 추신수는 8회 1사 1,2루에서 5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그는 1볼1스트라이크에서 연속 3개의 볼을 고르면서 두번째 출루에 성공했다. 2사 후 마자라의 2루타가 나오면서 2점이 추가됐지만 추신수는 3루까지만 향했고, 추가타는 나오지 않았다.

9회에 추신수는 또 한번 타석에 나설 기회를 맞았다. 1사 만루의 기회에서 추신수는 1루 땅볼에 그치며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사이 3루주자가 홈을 밟아 추신수는 1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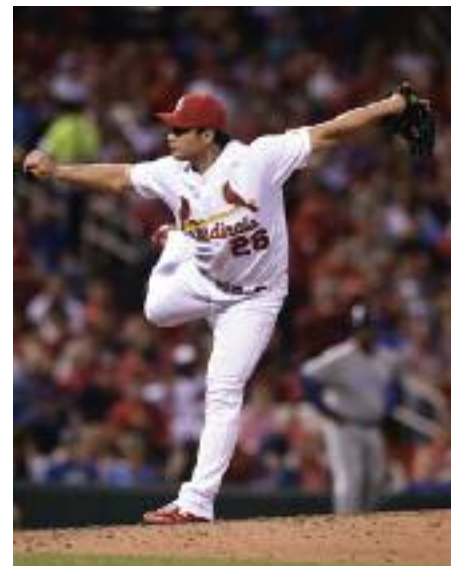
점을 올렸다. 하지만 승부는 기울었고 텍사스는 10-22로 대패했다.

텍사스는 49승52패로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3위를 유지했다. 마이애미는 46승53패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4위를 마크했다.

김현수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결장했다. 전날 탬파베이전에 8회초 대타로 나와 삼진을 당했던 김현수는 이날 벤치에서만 경기를 지켜봤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32이다. maeng@news1.kr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5)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오승환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LISTINGS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ASKING \$359,000



Single Family in Quincy, Guest House에 적합한 4 B/R, 2 1/2 Bath
ASKING \$640,000

SOLD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Drop shop in Newton
ASKING \$70,000



Nail salon in Dedham
ASKING \$35,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TEL. 617.467.5218
FAX. 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Dabulry Parish of Christ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트)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철

미주한인영수교장로의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기쁨의 터니라 (딤후 3:15)

주일예배 / 오후 2:00	금요기도회 / 저녁 7:30
유아 / 유치 / 초등 / 중고등부예배 / 청년부모임	
Grace Bible Study (수) 7:30	LIFE 모임/주일 4:00

담임 목사 / 우시창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뉴잉글랜드노회(KAPC)

가르치고
전파하라
(마 4:23)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8:00

밀알한국학교 운영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01.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Mart에서 15분 거리

담당목사: 박일중 목사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결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Framingham 오피스에 있는 세탁소
한달간 8-2시(월-금) 캐쉬어 보실 분.
T. 617-955-7932

North Attleborough 세탁소 프레스
파트타임 / 풀타임으로 일하실 분.
T. 617-955-7932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True World Foods

스시 레스토랑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풀타임 영업직원 구함.

한국어와 영어 모두 가능.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 사무실 업무에도 능숙.
식당업 또는 식품도매업에 익숙.
월 \$3,500 기타 혜택 제공 가능.

이력서 보낼 곳:
david-st@trueworldfoods.com

도우미 구함

FirstLight HomeCare of West Suburban Boston

한국인 노인분 대상 일상생활 도우미 파트타임 일하실 분 구함

영어 가능.
CNA / HHA 소유자 선호.

T.(Wendy) 781-559-0220

캠브리지 성업중인 한국식당
주매상 \$9,000+ 소유자 타주 이사
T. 508-962-2689

Tailor & Alteration Shop for Sale

-37-Year Old Business in Marblehead, MA
-Owner Retiring
-Call Mr. Son at 781-985-0222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CS PLLC 크라우저 앤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ayer.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긴급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제청	617-536-7469
날씨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4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술/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해군대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원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동해/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나사렛사람의교회	603-430-2929
내슈아한마음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한미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메리맥 교회	401-821-2311
목양교회	978-806-1363
무지개교회	617-223-1690
밀양한인교회	207-774-1617
렉싱턴 풍성한교회	978-244-0691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953-0856
보스톤 국제교회	617-864-5948
보스톤 감리교회	617-459-6479
보스톤 사랑의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617-285-8870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978-844-2404
보스톤 새로남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교회	617-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플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정영규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보스톤컨선테카이로	617-277-0648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신영목 치과	978-655-1583
안 치과	617-265-5606
엘렉패밀리덴탈	781-647-8000
이영완치과	617-471-6970
이요셉치과	508-987-8228
케임브리지덴탈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켄지치과	617-871-1482
손영권치과	617-471-2184
프랑스팩트덴탈그룹	978-459-0594
한은애정치과	617-576-5300
아이콘덴탈	781-894-1127
ASHLAND FAMILY DENTAL	781-861-8978
장승혁보철임플랜트	508-881-7272
전문치과	617-489-1470
Smart Dental	401-729-2711
ACTON 살쥬치	781-322-4914
메모리얼병원(병리)	978-263-4592
문하영림 보청기	203-330-8080
	781-573-3277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얼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운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톡 헤어샬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콤방	617-437-0378
스프링필드헤어인테리어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올스톤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병원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의원	
가정의	
그레이트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주)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신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우진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형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선테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신영목 치과	978-655-1583
안 치과	617-265-5606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성모안과

"일상 생활시, 눈물이 나와요" 눈물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가끔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눈물이 자주 나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번주 휴람에서는 휴람네트워크 좋은사람들 성모안과의 도움을 받아 눈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눈물은 대부분 눈물샘, 그리고 나머지는 결막에 있는 보조 눈물샘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눈물의 기능은 혈관이 없는 각막에 대기중의 산소를 공급해 주고,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작용과 각막의 표면을 매끈하게 해 주어 더 깨끗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작용을 한다. 분비된 눈물은 어디론가 알맞게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생성된 눈물의 일부는 공기중으로 증발되어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는 눈물의(하수관)로 내려가서 코속으로 배출이 된다. 그러나 생성과 배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눈물이 마르거나 넘쳐날 수 있게 된다. 하수도가 막히면 물이 내려가지 않고 고인물이 썩게 되듯이 눈물길이 막히게 되면 눈물이 고이게 되고 이어서 눈물주머니 염증이 생기게 되면 눈곱이 끼게 되어 불편을 느끼게 된다.

Q "눈물이 나서 손수건으로 자주 닦아 내어 불편해요"

A. 일단 안과에서 눈물의 과다 분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감별이 필요하다. 눈물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의 흔한 원인으로 눈이 건조해서 시리고 아파

눈물이 나는 반사적 눈물흘림이 있을 수 있다.

과다 분비가 아니라면, 눈물의 배출 기능장애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이다.

Q. "안과에 갔더니 눈물길이 막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A. 실제로 검사해도 반사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많이 고여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수도관의 협착(좁아지는 것)이 있는 경우는 눈물길 수술의 적응이 되고 성공률도 높다. 다른 경우는 누점이 좁아져 있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는 눈물구멍을 넓혀주는 간단한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이때 실리콘관을 삽입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지켜 보거나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는 눈물길 수술이나 존스관(결막에서 비강으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수술)삽입 수술을 하기도 한다.

Q. "수술을 어떻게 하나요?"

A. 눈물길 수술은 좁아진 코눈물길을 확장한 후 시행하는 실리콘관 삽입술과 폐쇄된 코눈물관을 우회하는 새로운 눈물 배출길을 만드는 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이 있다.

눈물주머니코안연결술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하게된다.

- 1) 겉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하는것
- 2) 내시경을 사용하여 코를 통해서

하는 방법

수술 후 실리콘관을 약 3~6개월 정도 놔 두었다가 제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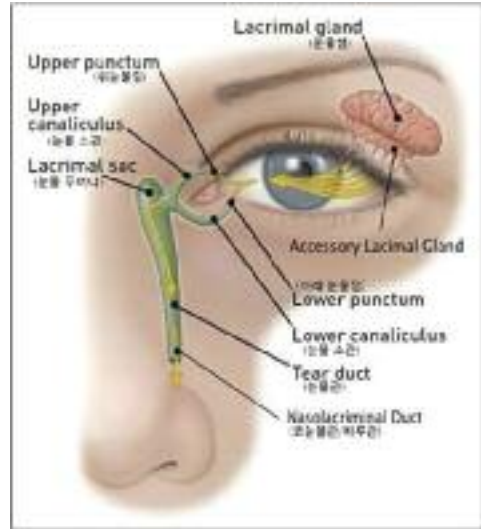
성공률은 두 방법이 상수도관의 문제가 없는 경우 85%~95% 정도이므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취는 시술병원이나 환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전신마취나 국소마취로 할 수 있다. 수술 후 가장 흔한 문제는 재발이며 이럴 경우 재수술로 코속의 자란 살을 떼어내 주게 된다.

* 눈물 배출경로 중 코눈물관(하수도관)이 좁아지거나 부분적으로 폐쇄된 경우는 탐침으로 확장시킨 후 실리콘관 삽입술을 시행한다.

* 위의 배출경로 중 어느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고일수 있으며 가장 흔히 막히는 부위는 코눈물관(하수도관)이다. 눈물길 수술은 막힌 곳을 뚫어 주기보다는 막힌 위쪽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우회 수술인 셈이다.

Q. "수술이 무서운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나요?"

A. 전신마취로 수술 받게 되면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고 국소마취로 수술을 받는 경우도 진정제를 투여하므로 통증은 그리 심하지 않다. 대개의 경우 눈곱이 많이 끼거나 바람 불거나 추운데 가면 눈물이 많이 나 불편해서 수술을 받게 된다. 하수도가 막히게 되면 눈물이 고여 있게 되고 이것이 눈물주머니 염증을 일으켜 눈 안쪽을 눌러주면



← 눈물 배출로의 경로 그림
눈물샘(수도꼭지)에서 눈물이 생성 - 누점(물꼭지,마개) - 눈물소관(상수도관) - 총눈소관(상수도관 두 개가 합쳐진 부위) - 눈물주머니(눈물 수집관) - 코눈물관(하수도관) - 코속으로 배출

고름 같은 것이 눈으로 나오기도 한다. 간혹 급성으로 염증이 발생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를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으므로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회수가 많아지고 책을 읽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가 되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Q. "우리집 아이가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나서 짓물러요"

A. 대개 태어나면서 눈물길의 마지막 배출구인 하스너(Hasner) 밸브가 뚫려서 나오나 20%에서는 막혀있게 된다. 대개는 생후 1세안에 좋아지게 되나 그렇지 않고 증상(눈곱,눈물,눈꺼풀 과부발적)이 계속되는 경우는 처치

가 필요하다. 항생제 점안약의 사용이나 마사지등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마사지의 방법은 공통눈물소관부위를 검지로 눌러 눈물점의 분비물이 역류되어 나오는 것을 막으면서 눈물주머니와 코눈물관내에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안쪽과 아래쪽으로 약간 세게 훑어 내리는 것으로 한번에 다섯 번 이상 훑어내리는 이러한 마사지를 하루에 적어도 두 번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생후 6개월을 전후로 탐침을 시행하게 된다. 대개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는 시술의 성공률은 90%에 가깝다. 탐침이 실패할 경우 한달 후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계속 눈물이 날 경우 실리콘관 삽입술, 눈물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55-9112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1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즉,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이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 사고 전문 치료 및 변호사 상담 :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효과 극대화 및 전문 변호사 연결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증 및 척추측만 교정

개원기념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정밀 척추 검사
\$20(reg.\$250)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PO, 학교/유학생/여행자
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8am-5pm
토(Sat) : 9am-12pm
일(Sun) : Closed





이병헌 · 김윤석 '남한산성', 9월 개봉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CJ엔터테인먼트는 26일 "'도가니' '수상한 그녀' 황동혁 감독의 차기작이자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박희순, 조우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남한산성'이 9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예고편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속 조선의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한 47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출간 이래 7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김훈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도가니' '수상한 그녀'의 황동혁 감독과 총무로 대표 연기파 배우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고수, 박희순, 조우진이 결합하여 기대를 모은 작품이다.

이번에 공개된 '남한산성' 티저 예고편은 1636년, 병자호란을 일으킨 청의 공격을 피해

임금과 조정의 남한산성으로 숨어드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며 궁극증을 증폭시킨다.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에서 같은 충심을 지녔지만 다른 신념으로 맞서는 최명길 역 이병헌과 '김상헌' 역 김윤석의 등장이 팽팽한 긴장감을 더한다. "오랑캐의 발 밑을 기어서라도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치욕을 견디고 청과의 화친을 도모하려 하는 최명길 역의 이병헌과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청에 맞서 싸우려 하는 김상헌 역의 김윤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배우의 열연과 새로운 호흡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eujenej@news1.kr



'조작' 첫방, 남궁민 명불허전 연기 '액션부터 오열까지'

(서울=뉴스1스타) 윤정미 기자 = 남궁민, 유준상, 엄지원, 문성근이 첫 방송부터 개성 강한 매력 캐릭터를 펼쳐 보이며 '조작'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주인공 한무영을 맡은 남궁민은 액션은 물론 감정선까지 완벽 소화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24일 SBS 월화드라마 '조작'이 처음 방송됐다. 이 드라마는 애국신문 소속의 문제적 기레기 한무영(남궁민)과 상식을 믿는 진짜 기자 이석민(유준상), 정열적인 검사 권소라(엄지원)가 하나로 뭉쳐 변질된 언론에 통쾌한 일격을 가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첫 방송에선 한무영이 기레기가 되어 5년 전 죽은 형 철호(오정세)의 진실을 쫓는 모습에 이어, 5년 전 무영의 형 철호와 대한일보의 기자 석민, 검사 소라의 운명이 소용돌이치게 되는 과정이 공개됐다.

권력실세를 둘러싼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재벌 민회장은 대한일보 스피어시프의 석민과 비밀인 터뷰를 했다. 이어 자신이 비자금을 건넨 권력실세들의 명단을 건넸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혼드는지를 보고 다음 명단을 건네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석민은 검찰과 손을 잡았고 뉴스가 실리는 날 함께 움직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대한일보의 상무이자 스피어시프 팀을 이끌었던 구태원(문성근)은 언론을 권력비호의 도구로 이용했고 후배들을 배신했다. 민회장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결국 소신을 지키려 했던 석민의 기사는 오보가

됐고, 차장검사를 압수수색하려던 권소라 검사 역시 추락의 길을 가게 됐다.

또한 구태원은 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조력했던 철호를 없애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자책감에 시달리다 권력의 배후를 캐던 철호는 동생인 무영이 보는 앞에서 차로 치어 살해됐다.

이처럼 언론이 이용당하는 과정을 그린 탄탄한 스토리와 함께 배우들의 연기 역시 몰입도를 높여줬다. 대한일보의 최정에 팀을 이끌고 있는 석민 역의 유준상은 냉철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지닌 소신기자 석민의 매력을 충실히 보여줬고 권소라 역의 엄지원 역시 불의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여검사의 카리스마를 표출해 눈길을 모았다. 문성근 역시 언론권력의 정점에서 서 있는 비정한 태원의 이중적인 모습과 소름 돋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며 앞으로 활약을 기대케 했다.

특히 주인공 한무영 역을 맡은 남궁민은 호쾌한 액션과 능청스러운 부산사투리를 구사하는 모습은 물론, 형의 죽음을 목격하고 충격에 오열하는 모습, 복수의 칼을 가는 차가운 눈빛 연기까지 다양한 감정선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열연으로 '믿고 보는 배우'란 수식어를 증명했다.

배우들의 열연과 탄탄하고 치밀한 스토리로 포문을 연 '조작'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며 인기작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galaxy98@news1.kr

'김빵생활' 신원호 PD "훌륭한 배우들, 멋진 오케스트라 완성"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올 하반기 tvN에서 방송될 신원호 PD의 신작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연기 神'들의 총집결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 할 것 없이 장르를 넘나들며 업계에서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것. 특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대본 리딩을 출연자 그룹별로 나눠 진행할 만큼 등장 인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등장인물에 명품 배우들을 캐스팅해 이목을 사로잡는다.

지난 17일 진행된 대본 리딩에는 김경남, 이규형, 박호산, 강승윤, 김한중, 정민성, 주석태, 김성철, 이호철, 정재성, 최연동, 강기동, 안상우, 박형수, 이훈진, 김기남, 안창환, 이도겸, 신재하 등 업계를 주름잡는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감옥을 배경으로 한 이번 작품에서 재소

자, 교도관, 주인공의 가족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 배우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본 리딩 현장의 몰입도를 높여갔다.

신원호 PD는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들이 대거 포진한 만큼, 멋진 오케스트라가 완성될 것"이라며 "모든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해수, 정경호와 성동일, 최무성, 정우인, 유재명, 정수정, 임화영 등 앞서 공개된 배우들과 더불어 연극·영화 출신 명품 배우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드라마로, 하반기 tvN에서 방송된다.

ichi@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7월 17일 ~ 2017년 7월 23일

Nielsen Media TV 자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9.5%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19.8%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18.5%
4	KBS1	KBS9뉴스	15.3%
5	SBS	미운우리새끼다시쓰는육아일기	15.2%
6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14.5%
7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14.2%
8	SBS	정글의법칙INKOMODO	14.0%
9	KBS1	전국노래자랑	13.0%
10	KBS2	해피선데이	12.6%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	KBS1	일일연속극(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3	KBS2	일일드라마(이름없는여자)
4	MBC	주말드라마(당신은너무합니다)
5	SBS	특별기획(언니는살아있다)
6	MBC	주말특별기획(도둑놈도둑님)
7	MBC	아침드라마(훈장 오순남)
8	SBS	아침연속극(달콤한 원수)
9	KBS2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10	MBC	수목드라마(죽어야 사는 남자)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비도 오고 그래서 (Feat. 신용재)	헤이즈 (Heize)
02	빨간 맛 (Red Flavor)	Red Velvet
03	널 너무 모르고	헤이즈 (Heize)
04	Artist	지코 (ZICO)
05	마지막처럼	BLACKPINK
06	나로 말할 것 같으면 (Yes I am)	마마무
07	남이 될 수 있을까	볼빨간사춘기
08	Ko Ko Bop	EXO
09	매일 듣는 노래 (A Daily Song)	황치열
10	FIVE	Ap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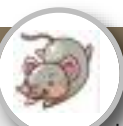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2				1	7		3
	9		3	2	6	4	
				8	2		
	8			2		5	
	3						1
		4		9			2
		1	4				
	4	9	2		6		5
3		8	5				4

7월 30일 - 8월 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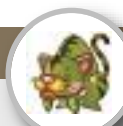
쥐띠 | 행복하게 해주는

● 운수: 큰 걱정거리도 없고 주변 여건이 안정된 상태이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아프던 사람은 건강이 차츰 회복되어갈 것입니다. ● 금전: 실보다는 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니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때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4일 길일. 30, 2일 주의.



소띠 |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 운수: 마음만 먹고 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기에 좋은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도록 하세요. ● 금전: 노력한 만큼 수확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푼 두푼 모아둔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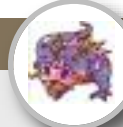
범띠 |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 운수: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 금전: 희망적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의 고민이나 배우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침묵하고 잘 들어주는 가운데 사랑이 영글어갑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토끼띠 |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 운수: 작은 것이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작 문제는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금전: 사랑발람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혹해서 잘못 따라가다가는 손해 보게 됩니다. ● 애정: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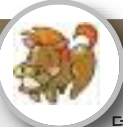
용띠 |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 운수: 기다려도 영 소식이 없었던 곳에서 소식이 옵니다. 드디어 바라던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나무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둘만의 시간을 갖기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 등 여럿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애정을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5일 길일. 30, 3일 주의.



뱀띠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 운수: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늘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 애정: 큰마음을 먹고 언젠가 큰 것을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것이라도 상대를 위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31, 2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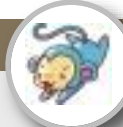
말띠 | 열길 물속은 알아도

● 운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평소 불편하던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 금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득이 따라올 것이다. ● 애정: 온전히 상대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1, 3일 길일. 30, 5일 주의.



양띠 | 한우물만 파야

● 운수: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 내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여기저기로 분산될수록 이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우물만 파야 귀한 물을 얻게 됩니다. ● 애정: 불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만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행복해집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0, 4일 길일. 3, 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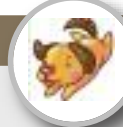
원숭이띠 | 안전한 편을 택해야

● 운수: 주위에 알게 모르게 시기가 질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 금전: 모험이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투자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안전한 편을 택해야 합니다. ● 애정: 조금만 더 일찍 그만 두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망설이고 시간을 끌다가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1, 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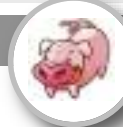
닭띠 | 변화의 물결이

● 운수: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주어야 합니다.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 잘 살펴서 문제가 될만한 것을 피해가야 하겠습니다. ● 금전: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룰수록 손해만 커집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 같은 감정에 변화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3일 길일. 30, 5일 주의.



개띠 |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 운수: 이미 떠나면 아무리 팔을 흔들어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머릿속의 계산으로 기와집을 수십 채 지어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괜히 들떠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피하고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일 길일. 31, 5일 주의.



돼지띠 |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 운수: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고 헛수고만 하게 됩니다. 지나친 긴장감이나 걱정으로 체력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은 때입니다. 그날그날에 따라 수입의 변동 폭이 클 것입니다. ● 애정: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5일 길일. 1, 4일 주의.

'밤도깨비' 이수근, 정형돈에 김종현까지 온몸으로 밤샘 표현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JTBC 불면버라이어티 '밤도깨비'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25일 공개된 '밤도깨비'의 포스터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표출하는 출연진 정형돈, 이수근, 박성광, 이흥기, 김종현의 모습이 담겼다. 출연진은 1등으로 아이템을 쟁취하기 위해 긴 시간 밤을 지새우며 인내하는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표정 연기로 표현했다.

밤도깨비 5인방은 '피곤' '노숙' '밤샘' '몸부림'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자,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 포스터 촬영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들의 모습은 일러스트 느낌을 더해 금방이라도 전염될 것 같은 피로감을 발산하고 있다. '밤도깨비'의 로고는 유령처럼 밤을 떠돌아다니는 도깨비불을 형상화해 표현, 프로그램의 개성을 더했다.

오는 30일 저녁 6시30분 첫 방송을 앞둔 '밤도깨비'는 '나 혼자 산다' '능력자들'의 이지선 PD가 새롭게 선보이는 버라이어티 예능프로그램



이다. '밤도깨비'는 매주 핫한 장소와 상품, 먹거리 등을 '1등'으로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출연진의 여정을 담는다. 출연진은 다음날 아침, 1

등을 쟁취하기 위해 때와 장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숙을 하며 밤을 지새운다.
aluemchang@news1.kr



'컴백 임박' 샤넬, 복싱으로 다진 몸매 공개 '군살 제로'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가수 샤넬이 몸매 관리 비결을 공개했다. 샤넬은 최근 한 매거진과 진행한 화보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복서' 컨셉으로 사진을 찍었다. 샤넬은 과거의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장미와 카리스마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드러냈다.

샤넬은 "복싱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허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덕분에 허리와 등 근육이 탄

탄해졌다" 라며 복싱의 장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샤넬은 7월 말 공개 예정인 새 앨범에 대해 남다른 만족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3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컴백 앨범은 타이틀곡 'Hello'와 앞서 공개된 '눈물이 흘러' 등이 수록된다.

한편, 샤넬은 27일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hmh1@news1.kr

'냄비받침' 안재욱 · 김흥국, 두 형님의 조세호 놀리기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안재욱과 김흥국이 조세호 놀리기에 재미를 붙였다.

25일 방송한 KBS 2TV 예능 '냄비받침'에 출연한 조세호는 김흥국과 안재욱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맛집을 방문했다.

조세호는 안재욱과 김흥국에게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지 물었다. 김흥국은 "그런 게 꼭 있어야 하니"라고 답했고 안재욱은 "내가 한번 죽을 뻔했잖아. 음식 생각이 안 나"라고 말하며 "죽기 전에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 싶다"라고

답했다. 세 사람은 조세호가 추천하는 돼지 목살 맛집으로 향했다. 조세호는 "맛집 사장님이 단골로 제 이름을 말 안 하면 오늘 음식값을 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다.
europa@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돌아온 여진구, 죽음 이유 밝혀졌다



(서울=뉴스스타)윤정미 기자= 여진구가 12년전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또한 그를 그리워하는 이연희와 여진구가 1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재회했다.

19일 SBS 수목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가 처음 방송됐다. 2005년 사망했던 해성이 12년 후인 2017년 다시 19살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전개가 그려졌다.

정원을 비롯한 친구들은 2005년 사망한 해성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12년전 사망했던 해성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해성은 낮잠을 자고 일어났고 자신의 모든 일상이 변해있는 것에 경악했다. 그의 기억은 2005년 당시에 멈춰 있었고 외모 역시 19살의 고등학생의 모습이었던 것.

이날 방송에선 해성이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된 상황이 그려졌다. 생일날 깜짝 파티를 준비하던 정원과 가족들. 이에 시간을 벌기위해 미술실에서 지갑을 가져다달라고 정원이 거짓말을 했다. 해성은 미술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다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고 결국 죽음을 맞았다.

이날 방송에선 해성을 그리워하던 31세의 정원과 다시 살아 돌아온 19살의 해성이 다시 재회하는 내용이 펼쳐지며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떤 전개를 맞을지 궁금증을 더했다.

galaxy98@news1.kr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아버지가 이상해 |
| 2 | KBS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 3 | KBS | 이름 없는 여자 |
| 4 | MBC | 당신은 너무합니다 |
| 5 | SBS | 언니는 살아있다 |
| 6 | MBC | 도둑놈 도둑님 |
| 7 | MBC | 훈장 오순남 |
| 8 | SBS | 달콤한 원수 |
| 9 | KBS |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
| 10 | MBC | 죽어야 사는 남자 |

티보플레이 7월 3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MBC | 죽어야 사는 남자 |
| 2 | SBS | 다시 만난 세계 |
| 3 | MBC | 왕은 사랑한다 |
| 4 | SBS | 파티피플 |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 | | |
|---|----|
| 1 | 미정 |
|---|----|

'파티피플' 이효리, 미쓰에이 '뱃걸 굿걸' 완벽 소화

(서울=뉴스스타) 김민지 기자 = '이효리가 그룹 미쓰에이의 데뷔곡 '뱃걸 굿걸'을 색다르게 소화했다.

22일 밤 방송된 SBS 음악 토크쇼 '박진영의 파티피플' (이하 파티피플)의 코너 뺑고송에서 이효리는 후배 그룹 미쓰에이의 '뱃걸 굿걸'을 커버해 새로운 무대를 꾸몄다.

무대를 꾸미기에 앞서 이효리는 "그 친구들이 잘하기도 했지만 이 곡 가사가 나를 표현하는 듯했다. 나는 춤출 때는 '뱃걸'이었지만 사랑할 때는 '굿걸'이었다"고 말했다.

이효리는 기존 곡과 다른 분위기로 편곡된 노래를 들려줬다. 이효리는 그만의 독특한 음색과 여유로운 무대매너로 특별한 '뱃걸 굿걸' 무대를 만들었다.

관객들은 이효리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고 열광했다.

breeze52@news1.kr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9⁹⁹

7.31.2017까지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19⁹⁹

7.31.2017까지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29⁹⁹

7.31.2017까지

7월 한달 프로모션

\$9⁹⁹

~~\$14.99~~

KBS MBC SBS



7월 한달
프로모션

\$9⁹⁹
~~\$14.99~~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9⁹⁹
7.31.2017까지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19⁹⁹
7.31.2017까지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29⁹⁹
7.31.2017까지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신영의 **세상 스케치**

606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2017 미션 유(Mission U)

지난 7월 21일, 22일(금,토) 1박 2일의 일정으로 New England United Methodist Women "2017 Mission U"라는 슬로건으로 서던 뉴햄프셔 대학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에서 리트릿이 있었다. 해마다 이맘 때쯤에 열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모임으로 미국인들과 한국인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민족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몇 년 전 한 번 참석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을 해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서로 다른 민족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미국이지 않던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더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은 연합감리교회 연회와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 손영희) 주최로 이뤄졌다. 이 모임을 위해 임원진들의 쉼 없는 기도와 사역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에 감사한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이뤄낼 수 없음을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또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 보면 상대방편만이 아닌 내가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말이

다. 그러하기에 누군가에게 이끌려서가 아닌 나 자신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나고 나누고 느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번 <선교 학교>에서는 에비 맥도날드의 <언약 공동체의 삶>이란 책자로 공부를 하였다. 한국인 교인들이 5개 교회에서 21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강사로는 보스톤의 <비전교회>의 담임 목사인 홍종욱 목사가 담당했다. 또한 미국인들과 한국인 그리고 그 외의 민족들이 모여 함께하는 둘째 날의 전체 예배에서도 로마서 8장 35-39절 말씀으로 "The Grace of God runs deeper than our failures"(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깊고 큼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홍 목사가 인도하였다. 참으로 감동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모임을 통해 나 개인적으로 얻게 된 것은 공부 자체보다도 이렇듯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참석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모두가 바쁘게 사는 요즘 1박 2일의 시간을 내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

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렸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내 것을 내놓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이 그렇지 않던가. 그 어떤 신앙의 높낮이를 깊이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전체 설교 말씀을 위해 영어 설교를 준비했을 홍종욱 목사의 수고가 있어 많은 미국인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의 예배시간 되었던 것처럼, 영어 예배를 위해 기도를 많은 정 에스더 권사님의 그 간절함의 정성스런 준비를 보고 놀라고 말았다. 또한 헌금 특송으로 영혼의 울림으로 전해 주신 최신자 집사님과 열정적인 피아노를 담당해 주신 말간 모습의 집사님이 감동의 시간에 미국인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었다. 이 모두가 혼자서 아님을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임을 깨닫게 해 주신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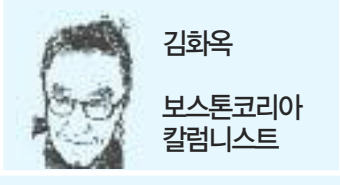
참석한 미국인들 중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다. 몇십 년을 이를 위해 쉼 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이끌어오신 분들이시다. 찬

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성심성의껏 삶을 이어오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나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나타냄이 아닌 저절로 흘러넘칠 수 있는 자연스러움 말이다.

우리는 모두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사랑한 사람에게 독특하고 값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 누구도 훔쳐 낼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특별함을 발견할 여유를 찾지 못한 것뿐이다. 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찾아볼 겨를 없이 삶에 이끌려 사는 까닭이다. 마음의 조급함으로 결의 다른 사람을 챙겨볼 마음조차 없다. 그러니 다른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되고 그 경쟁으로부터의 승리만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선택하신 분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며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미루나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미루나무, 포플러, 미류나무. 모두 같은 나무를 일컫는다. 신작로新作路 양쪽에 줄지어 섰던 그 나무다. 포플러라는 이름도 좋고, 미루나무도 싱그럽다. 너무 흔했기에 그런가. 그 나무가 그 나무인 줄 알지 못했다. 최인호 소설 광장에 나오는 글 대목이다. 잎이 무성한 포플러 나무는 길가에 나란할 적에, 빗자루 꺼꾸로 세워 놓은 듯 보인다.

‘길가에 늘어선 포플러는, 거꾸로 꽂아 놓은, 휘휘 타는 빗자루였다. 그것들은 정말 휘휘 타고 있는 듯이 보였다.’

1977년 여름 판문점. 포플러 나무는 도끼만행

사건 중심에 있었다. 사건 당시, 나는 한국 육군 중대장이었다. 비상이 걸렸다. 군장을 차리고, 군화도 벗지 못한 채 대기에 들어갔다. 늦은 저녁시간 중대장이 내무반에 들어섰다. 축수 높지 않은 백열등을 그의 뒤통에 켜다. 놀라운 철모에 가린 눈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무거운 듯 명령만 짧게 하달됐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는데 끝맺는 말은 서늘했다. 유사有事시엔 군인이 가장 안전하다. 그 말에 병사의 다리는 슬그머니 풀려서 주저 앉을 뻔 했다. 전쟁이 임박臨迫했음을 쉽게 알아차린 거다. 머리가 하얗게 비어갔다. 몇달후 휴가 나갔을 적에, 친구들이 전해준 말이다. 사회에선 큰 동요動搖가 없었다. 후방 길가의 미루나무 잎은 무심히 여

름바람에 설렁 흔들렸을 뿐이었다.

강가에 키 큰 미루나무 한 그루 서 있었지 여름이었어
나, 그 나무 아래 누워 강물 소리를 멀리 들었지
(김용택, 나무 중에서)

지난 5월에 발간된 타임지이다.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기사중 한 대목이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이다. 문대통령도 한국군 병사였다. 그는 문제의 미루나무를 잘라내는데 투입되었다. 문재인 병사도 무서웠을 것인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대통령이 했다는 말. ‘그때 북측에서 나무절단 작업을 방해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 기사를 읽으며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동료의식이라 해야 할까.

한동안 말이 쉬운 듯 어려워 논란이 되었다.

. 북침北侵인가? 남침南侵인가? 한자로 표기할 적에 헛갈리는 건 사실이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다. 미루나무인가? 포플러 나무인가? 아니면 미류나무인가? 차라리 빗자루 나무라 할까보다. 판문점에 잘린 그 나무 밑동에도 새 가지가 뻗어나왔을 거다.

소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도 미리 알았을 건가. 한반도에선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이다. 북쪽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고 (다니엘, 4:23)

1. 이견 군사비밀에 속하는지 그건 모르겠다. 수십년이 흘렀으니 별 큰일은 아니리라 믿는다.
2. Time, 5.15, 2017

Prime Motor Group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A new kind of car buying experience



2017 Hyundai Elantra SE

The vehicle features:
Popular Equipment Package, Rear-view camera, 8.5" Inch Display, LCD Cluster Display, Apple CarPlay/Android Auto

AWD, Automatic

Stock #H01216A

Lease	Purchase	Finance
\$59/mo.	\$14,890	0% APR
• 36 month lease	MSRP.....\$20,300	Available on select models for qualified customers in MA only. See dealer for details.
• 10,000 miles per year	Rebate.....\$4,000	
• \$0 down payment	Trade Discount.....\$1,800	

2017 Hyundai Santa Fe Sport

The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Apple CarPlay, Android Auto, Bluetooth/Hands Free Phone System, Fog Lights

AWD, Automatic

Stock #H01216B

Lease	Purchase	Finance
\$129/mo.	\$20,825	0.9% APR
• 36 month lease	MSRP.....\$28,420	Available on select models for qualified customers in MA only. See dealer for details.
• 12,000 miles per year	Rebate.....\$4,900	
• \$1,999 down payment	Trade Discount.....\$2,700	

2017 Hyundai Sonata 2.4L

The vehicle features:
Backup camera, 18" Alloy Wheels, Bluetooth, Sirius XM

FWD, Automatic

Stock #H01216C

Lease	Purchase	Finance
\$139/mo.	\$15,560	
• 36 month lease	MSRP.....\$22,360	
• 10,000 miles per year	Rebate.....\$1,000	
• \$1,999 down payment	Trade Discount.....\$1,000	

2017 Hyundai Tucson ECO

The vehicle features:
Olefin Blind Spot Monitor, Blind Color, Touchscreen Audio, Rearview camera

AWD, Automatic

Stock #H01216D

Lease	Purchase	Finance
\$149/mo.	\$19,920	0.5% APR
• 36 month lease	MSRP.....\$25,079	Available on select models for qualified customers in MA only. See dealer for details.
• 10,000 miles per year	Rebate.....\$3,750	
• \$1,200 down payment	Trade Discount.....\$1,800	

2017 Hyundai Sonata Limited

The vehicle features:
Power Moonroof, Apple CarPlay/Android Auto, 7.8" screen

AWD, Automatic

Stock #H011621

Lease	Purchase	Finance
\$159/mo.	\$17,580	1.9% APR
• 36 month lease	MSRP.....\$24,210	Available on select models for qualified customers in MA only. See dealer for details.
• 10,000 miles per year	Rebate.....\$7,000	
• \$1,999 down payment	Trade Discount.....\$3,100	

2017 Hyundai Santa Fe SE

The vehicle features:
LED Headlamps, 8 Speakers, Heated Seats, 18" Alloy Wheels, Power Windows/Locks, Remote Keyless Entry

AWD, Automatic

Stock #H01216E

Lease	Purchase	Finance
\$159/mo.	\$27,765	
• 36 month lease	MSRP.....\$34,665	
• 12,000 miles per year	Rebate.....\$2,000	
• \$1,200 down payment	Trade Discount.....\$3,000	

2017 Hyundai Accent SE

The vehicle features:
Automatic, Sirius XM, Apple CarPlay/Android Auto, Full PHEV Option

FWD, Automatic

Stock #H01216F

Lease	Purchase	Finance
\$179/mo.	\$11,855	0% APR
• 36 month lease	MSRP.....\$16,755	Available on select models for qualified customers in MA only. See dealer for details.
• 10,000 miles per year	Rebate.....\$2,000	
• \$0 down payment	Trade Discount.....\$2,900	

2017 Genesis G80 3.8

The vehicle features:
Premium Nappa leather, leather-trimmed seats, 17" alloy wheels, 17" alloy wheels

AWD, Automatic

Stock #H01216G

Lease	Purchase	Finance
\$269/mo.	\$39,965	1.9% APR
• 36 month lease	MSRP.....\$44,565	Available on select models for qualified customers in MA only. See dealer for details.
• 10,000 miles per year	Rebate.....\$3,000	
• \$2,999 down payment	Trade Discount.....\$1,000	

한국인 딜러

Earl Ko 고열
Authorized Hyundai Dealer
617.755.6941

"Leases exclude tax, title, acquisition fee. 10k miles per year. *All qualified rebates to dealer. **Must take delivery same day from dealer stock. PURCHASE OFFER – Price includes Valued Owner or Competitive Owner Coupon, Military Rebate, College Grad Cash, Flex Coupon (1) Prime Cash Discount available to all customers. (2) Retail bonus cash available on select Hyundai models purchased from dealer stock and financed through HMLT by 07/31/2017. Customers who participate in a Special Lease or Low APR program through Hyundai Motor Finance (HMF) do not qualify for Retail Bonus Cash. *** With approved credit only. FINANCE: Available to qualified applicants, not all will qualify.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1.9% APR for 60 months is 60 monthly payments of \$17.48 for every \$1,000 borrowed. All offers expire 07/31/2017."



Prime Hyundai South
1022 Hingham St. Rockland MA 02370
PrimeHyundaiSouth.com



마이클 리 (Michael Lee, 978-314-8818)
 Insurance Broker, mlee.insurance@gmail.com
 - License in Health, Life, Series 6, Series 63, Property & Casualty
 - Health/Life/Annuities/Medicare/Disability/Group Benefit/Reinsurance 전문
 Loan Officer, mike.lee@norcom-usa.com
 - NMLS # 1464242 / Real Estate License No. 9534498
 - Government & Conventional Residential Loan

Mortgage 3 요즘 이자율이 어때요?

(지난 호에서 계속)
 30년 고정금리기준, 2016년말 3프로 중후반대에서 2017년 4프로 초반대로 이자율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과연 실제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75,000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20% 다운페이먼트 후 \$300,000을 30년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불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들어 3.8%와 4.0%를 비교한다면 월 납부료는 \$1,397과 \$1,432로 차이는 월35불에 불과합니다. 물론 30년동안 유지한다면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지만 월 35불 차이가 집구매를 포기하거나 모기지 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프로대에서 4프로대로 인상은 생각만큼의 큰 차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율은 융자회사마다, 은행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모기지 전문 융자회사들이 많이 거래하시

는 큰 은행들과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차이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큰 은행들이 낮은 이자율로 광고를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터무니 없이 높은 클로징 코스트에 놀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Point로 이자율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포인트를 구매한다는 것은 이자를 미리 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Up front로 이자를 내고 미리 지불하는 만큼 이자율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위의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30년동안 0.2%의 차이를 미리 지불하고 4%대인 3.8%로 qualif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지불을 하고 미래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지만 지금당장 이자가 조금 높다고 해서 실망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기지는 크레딧 등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언제든지 재융자(refinance)를 받아 월 납부료

를 낮추거나 융자금액을 높여 현금을 유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금 목돈을 투자하여 이자를 미리 낼지, 아니면 앞으로 차차 갚아 나갈 것인지 상황에 맞춰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 입니다. 이미 다운페이먼트로 목돈이 투자되는 상황에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Closing Cost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대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이고 그 차액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는 금액은 오히려 클로징 코스트에 반영이 되어 실제 지불하는 클로징 코스트를 낮추고 큰 금액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finance할 시 지불하는 다운페이먼트 외 세금과 등록 관련 코스트를 융자금액에 합쳐서 융자를 받는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의 상황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고 원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계획들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자율 한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여러가지의 시나리오와 이에따른 closing cost, 월 납부금도 달라지게 되니 집을 구매하시기 전 반드시 미리 준비하며 원하는 부분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7월 마지막주)

● 영주권 갱신/재발급
 몇년 전 이민국은 영주권의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온라인 신청을 휴대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변호사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와 같이 보내야 할 증거자료도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보낼 수 있게 편리해졌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먼저 이민국의 공식 웹사이트로 가서서 온라인 계정을 만드시고 이 계정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myaccount.uscis.dhs.gov>

신청의 방식만 바뀐것이 신청의 내용과 첨부해야 할 증거 자료, 신청료 등은 기존의 신청과 동일합니다.

● 시민권 신청

이민국은 지난 1998년부터 75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들의 지문 채취의무를 면제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채취 기기의 발전으로 이제는 75세 이상의 시민권 신청자들도 지문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문 채취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은 계속해서 지문채취에 대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서 개정 (form I-485)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는 것과 같이 이민국은 이민관련 신청서 (form) 들에 대한 개정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 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6페이지였던 485

신청서가 무려 18 페이지로 개정됐습니다. 신청서의 분량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485 와 같이 제출해야 할 다른 신청서 (form G-325a) 에 기재할 내용들이 485로 통합됐기 때문이고 기재해야 할 내용은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

● H-1B

이민국은 지난 7월19 올해 쿼타 추첨에 뽑히지 못한 신청서들에 대한 반응을 모두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반송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아직까지 반송 또는 Receipt Notice 를 받지 못한 분들은 담당자 또는 이민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7월24일 부터 부분적으로 H-1B 에 대한 급행신청이 재개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쿼타에 면제되는 고용인, 즉 대학교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대학교 관련된 비영리 연구단체, 그리고 정부 비영리 연구조직 으로 부터 신청된 H-1B 은 급행신청이 현재 가능합니다.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복미 개봉 확정! 평범한 이들의 뜨거운 희망과 진심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운전사



한국 영화 최초 칸라지아 영화제 폐막작 선정!

80년 5월 광주로 간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서울 택시운전사의 실제 이야기

송강호-토마스 크레취만-유해진-류준열
나이 국적 불문 명배우들의 첫 만남!



A TAXI DRIVER 택시운전사

송강호 | 토마스 크레취만 | 유해진 | 류준열 | 장훈 감독
SHOWBOX presents WELL G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8월 11일 대개봉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ATaxiDriver-Movie.com facebook.com/HitKMovie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88

화랑세기花郎世紀, 6세 풍월주風月主 세종世宗(1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실은 평소에 동륜태자를 ... 했는데, 정숙한 어머니로서, 황후궁에 들어가 전주가 되었다. 진흥제가 백년 후 ... 할까 염려하여, 감히 태자를 거부하지 못하고 몰래 서로 이어 좋아했다. 태자는 조심함이 없이 구함이 더욱 심하여 졌다. 미실은 심하게 많은 것이 탄로될까 염려하여 미생과 의논하여 태자가 밖으로 나가 놀 때 유화 중 아름다운 사람을 택하여 많이 천거했다. 동륜태자와 더불어 미생의 무리가 날마다 밖에서 황음한 짓을 일삼았다.

흥제 원년 3월 동륜태자가 보명궁의 큰 개에 물리는 일로 인하여 죽었다. 대왕이 태자의 종인從人을 가려보니 미실의 낭도에 속한자가 많았다. 미실 ... 대왕 또한 새어나온 말을 얻어들은 바로는 미실의 방탕함이 ... 없어... 세종이 부름을 받아 들어와 미실이 원화를 물러나는 것을 승인했다. 그리고 ...하였다.]

미생은 미실의 동생이다. 그는 550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2세 풍월주인 미진부이고 어머니는 묘도부인이다. 묘도는 사도왕후(진흥왕의 비)와 자매로 박영실과 옥진의 딸이다. 누이 미실이 진흥왕의 총애를 받았던 까닭에 미생 또한 왕의 총애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진흥왕은 미생이 어릴때 궁으로 자주 불러 아들들인 동륜과 금륜과 함께 놀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

은 사다함의 형인 토함공으로 부터 화랑의 근본을 배웠다. 미생은 부귀하게 나고 자라서 아래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 성품 또한 여색을 밝히고 재물을 좋아하며 많은 사람들로 부터 신망을 잃고 있었다. 얼굴이 아름다운 미생은 어릴때부터 인격도야는 멀리하고 동륜태자와 함께 공주들을 포함한 많은 유희들의 치마폭에만 시선을 집중하였다. 미생은 당시에 아마도 처첩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아들이 백명이나 되었기에 아들들을 다 기억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미생은 누이 미실과도 근친상간하였다.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이나 20대의 혈기 왕성한 시기에 풍월주로 오르는데 반해 미생은 36세(585년)의 아주 늦은 나이에 풍월주가 되었다. 미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0세 풍월주 (미생편)에서 다룰 것이다.

위의 화랑세기(필사본)의 탈자가 좀 있어서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화랑세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광경이다. 동륜태자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미생 못지않게 여색을 좋아하였다. 그는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미실과 먼저 사통하였다. 동륜은 미실을 원하였고, 미실은 처음에는 동륜을 피하였지만, 진흥왕은 나이가 들어 갔고 태자인 동륜의 지속적인 청을 거

절하기가 어려웠기에 진흥왕 몰래 사통을 하였다. 하지만 동륜의 지나친 개방적인 행동에 그들의 연통이 탄로가 날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미실은 동생 미생에게 부탁을 하였다. 궁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원화들을 동륜에게 천거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터 그들의 주색과 황음은 정절을 향하게 되었다. 미생은 백명이 넘는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였고, 동륜태자는 아버지 진흥왕의 또 다른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마폭을 들추기에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다.

때는 572년 춘삼월 어느날 밤, 봄꽃이 만개한 보명궁을 홀로 월담하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동륜태자였다. 동시에 보명궁주가 키우던 큰개가 그를 덮쳤다. 동륜은 사나운 개에게 물리고 뜯겨서 중태에 빠졌고, 이에 놀란 보명궁주가 동륜을 데리고 들어가 응급치료를 했지만 그는 그만 절명하였다. 태자로서의 도리와 품위를 저버리고 부왕의 후궁을 노리다 '개 죽음' 당한 동륜은 4년 후에 앓을 왕좌마저 '봄날의 꿈' 이 되어 봄향기와 함께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였고 차기 왕권은 미실과 사도태후의 주도로 세종과 노리부의 지원하에 둘째 아들인 금륜에게로 갔다. 그가 제25대 진지왕이다.

미실은 진흥왕에게 색공을 한 후에는

왕후궁에 전주가 되었다. 전주는 왕후와 비슷한 지위였다. 그리고 세종은 부인인 미실에게 신하처럼 복종하였다. 미실은 남편에게 풍월주는 나라에 공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미실은 계속되는 색공으로 막강한 권력을 잡으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원화가 되면서 모든 화랑과 유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세종이 풍월주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남모와 준정의 살인사건' 으로 폐지되었던 원화제도가 부활되었다. 그런데 이 '개사건' 으로 인하여 진흥왕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에 관여한 모든 화랑도는 미실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미생과 어울려 유희들과 놀아난 동륜태자의 행각과 미실의 방탕한 색사도 밝혀졌다. 결국 미실의 원화 지위를 박탈하고 세종으로 하여금 풍월주로서 모든 화랑을 지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미실은 진흥왕으로 부터 버림을 받고 출궁당했다. 미실의 두번째 출궁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택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 무료 견적서
-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페인부스 완비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 경력 -

-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채 사원(대방동 남부 사업소 판금 도장부 근무)
- * Herb chamber 브레인트리 콜리즌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di, Toyota)
-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 Calvin's auto body 운영
- 26년 Auto body work!!



방학맞이 선명한 눈매, 오뎅한 콧날을 원하시는 당신이라면



고국 방문 성형 할인 이벤트!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 당당한 그녀가 아름답다! ”

당당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얼굴을 찾아드리는 기회!
방학맞이 고국 방문 성형 이벤트를 이용해보세요.
 고객님의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로 최상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병원 맞춤 컨설팅! 휴람!

01 EVENT **눈 성형**

- * 단매듭 연속 매몰
110 만원 → **88 만원**
- * 부분 절개
154 만원 → **123 만원**
- * 매직트임
110 만원 → **88 만원**

02 EVENT **코 성형**

- * 콧대 성형
220 만원 → **165 만원**
- * 코끝 성형
220 만원 → **165 만원**
- * 콧대 + 코끝 성형
385 만원 → **308 만원**



☐ 휴람에스테틱 협력병원



- 상기 비용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96) 부자들의 습관 1

토머스 코리(Thomas Corley)는 수년간 부자들의 습관(Rich Habits: The Daily Success Habits of Wealthy Individuals)을 연구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알아간다면 우리 역시 부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부자들의 공통적인 습관을 함께 알아봅시다.

*** 정말로 부자:** 부자들의 자산은 최소 \$3.2 Million이며 그중 16%는 \$5 Million 이상입니다. 부자는 매년 최소 수입이 \$160,000이며 부자들의 절반은 \$500,000 이 연 수입입니다.

*** 부자는 중장년:** 부자들의 80%는 나이가 50살 이상입니다.

*** 오랜 시간 필요:** 부자가 되기 위해 걸린 시간은 평균 32년입니다.

*** 직업의 만족감:** 본인 직업의 만족함

을 느끼는 부자는 86%이며 61%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 성공한 선생님(Mentors)을 보유:** 추구하는 분야에 스승을 모시고 '해야 할 것' 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들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 자수성가:** 부자들의 31%는 가난한 가정에서 45%는 중상층에서 자랐습니다. 단 24%만이 부모로부터 자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 좋은 습관:** 부자들의 73%는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배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 이라는 말을 다시 공감해 봅니다.

*** 독서:** 부자들의 88%는 본인 직업의 새로운 지식을 매일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85%는 매달 최소 두 권의 책을 읽니

다. 부자들의 63%는 운전이나 운동을 하며 듣는 책(Audio Books)이나 파케스트(Podcasts)를 듣습니다. 부자들은 흥미 중심(Entertainment)의 기사는 읽지 않으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건강한 육체:** 부자들은 거의 매일 운동합니다. 76%는 하루 최소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4번을 꾸준히 운동합니다. 정크 음식, 술, 담배, 등을 삼갑니다. 치실을 이용해 치석제거(Floss)를 매일 하며 적어도 7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 봉사활동:** 부자들의 72%는 매달 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합니다. 물론 많은 돈도 기부(Donation)합니다.

*** 재정상담가 고용:** 부자들 대부분은 재정상담가를 고용하여 모든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확인하며 제삼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참고하며 투자 결정을 합니다.

*** 투표:** 부자들 83%는 매번 투표합니다.

*** 같은 집, 아내, 자동차:** 부자들 64%는 20년 이상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이혼하지 않고 자동차를 오랜 기간 사용합니다.

*** 생활 계획:** 부자들 81%는 하루해야 할 일(To-do List)을 작성하고 점검합니다.

*** 부자들은 행복합니다. (They are happy!)**

투자는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펀드나 ETF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 후 운용할 것을 지난 25년 동안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장기간 투자하면 분명 큰 부자로 이어진다고 감히 장담해 봅니다.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 증여세 (5) - ‘부담부증여’ 에 대한 세금 (2)

2. 미국 세법상의 부담부증여

이번 주는 아래의 사례를 통해 부담부증여(Gift of Encumbered Property)에 대한 미국세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한국씨는 시민권자인 부(父)로부터 보스톤에 있는 상가를 증여 받았습니다.
- 증여당시 시가 : \$900,000
- 담보된 은행차입금 : \$400,000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 \$200,000

Part-Sale, Part-Gift

미국세법도 한국세법과 같이 부담부증여(Gift of Encumbered Property)를 일부는 ‘양도(매매)’, 일부는 ‘증여’ 로 봅니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 금액 \$400,000은 양도로 보며, 시가(FMV; Fair Market Value)에서 부채를 뺀 금액 \$500,000 (= \$900,000-\$400,000)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증여해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해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로 보는 채무금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Capital Gain)은 수증자(Donee)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나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수증자 자선단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차익은 수증자로부터 받은 대가(즉 수증자의 부채 인수액)에서 증여자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양도 대가가 증여자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증여자인 부(父)의 양도차익을 계산해보면,

- ① 양도가액은 \$400,000이고
- ② 양도당시 상가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200,000이므로
- ③ 양도차익은 \$200,000(= 양도가액 \$400,000 - 장부가액(Basis) \$200,000)입니다.

참고로, 한국세법을 적용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311,000이 되는데, 이는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상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① 양도가액(채무인수액)은 \$400,000이며
- ② 양도가액 \$400,000에 대한 취득가액은 \$89,000(당초취득가액 \$200,000중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 ③ 양도차익은 \$311,000(\$400,000 - \$89,000)입니다.

양도손실은 인정 안됨

사례를 바꿔 아래와 같이 부(父)의 취득가액이 은행채무액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 증여당시 시가 : \$900,000
- 담보된 은행차입금 : \$400,000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 \$600,000

이는 양도가액이 \$400,000인데 반해 장부가액(취득가액)은 \$600,000이어서 손실(loss) \$200,000(은행차입금 \$400,000- 취득가액 \$600,000)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담부증여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 세법에서는 양도로 인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경우에도 한국세법상 부(父)의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133,000이 계산됩니다.

- ① 양도가액이 \$400,000이며,
- ② 그 \$400,000에 대응하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은 \$267,000(= \$600,000의 9분의 4)이므로,
- ③ 양도차익은 \$133,000(양도가액 \$400,000 - 취득가액 \$267,000)입니다.

양수자의 취득가액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미국세법상의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살펴봅니다. 미국세법은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아래의 ①과 ②의 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손실을 계산할 때는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클 수 없음).

- ①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
a)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지급한 대가(즉 채무인수액)
b)증여당시의 증여자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
- ② 증여세 납부액 중 일부

위 내용에 따라 김한국씨의 취득가액을 구해보면, 아래의 ①과 ②의 합인 \$400,000(① \$400,000 + ② 0원)입니다.

- ① 아래의 a)와 b)중 큰 금액 : \$400,000
a)김 한국씨의 지급액(채무인수액) : \$400,000
b)증여당시의 부(父)장부가액 : \$200,000
- ② 증여세 납부액 중 일부 : 0원(Unified Tax Credit을 적용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가정)

이는 지난 주에 계산한 한국세법상 수증자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부담부증여와 관련한 김한국씨의 미국세법상 과세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증여자인 부(父)는 채무면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200,000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둘째, 또한 증여자인 부(父)는 증여재산가액 \$500,000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이때 김한국씨의 상가 취득가액은 \$400,000이 됩니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이용우 대표 "상식 깨는 게 카뱅이다...대출 중단 없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지난 2년간 카카오와 금융권, 전혀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은행을 준비했다. 생각도 달랐다. 금융권에서 '이게 상식'이라고 하면 ICT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고' 묻는 식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깨야 한다. 불편함이 카카오뱅크를 탄생시켰다.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불편하다'라거나 '잘못됐다'고 말해달라. 새겨 듣고 서비스를 추가하겠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27일 오전 7시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6시간 만에 요구불예금 계좌 6만5500좌, 모바일 앱 다운로드 17만건의 기록을 세우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전 내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시중 은행보다 10배 정도 망을 늘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로 전산이 일부 마비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카카오뱅크가 고려한 초당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은 10만명. 이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워낙 고객들의 관심이 많아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

라며 "충분히 대비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카카오뱅크의 목표는 '간편함'이다. 앱을 쓰기 쉽게 만들었고, 상품도 단순하게 구성했다. 우대조건도 과감하게 없앴다. 주요 경쟁력은 수수료다. 연말까지 이체나 입금, 출금 등 은행의 3대 수수료를 면제한다. 해외 송금 수수료도 시중은행 창구의 10%만 받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3대 수수료 면제는 어떤 은행도 해보지 않은 시도라 지켜보고 내년 수수료 체계를 다시 판단하겠다"며 "외화 송금은 은행의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핀테크업체와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과 대출 상품에도 특색있는 서비스를 더 했다. '세이프 박스' 서비스는 입출금통장에서 예비자금을 분류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월세로 매달 50만원씩 내야 하면 입출금통장에서 50만원을 예비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다. 하루만 설정해도 연 1.2%의 이자를 준다. 신용등급 8등급도 휴대폰 인증만 하면 50~300만원까지 대출을 받는 '비상금대출'도 눈에 띈다.

보안 문제는 기존 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신용평가 시스템도 기존 은행 체계에 카카오의 데이터를 일부 반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고객이 많이 유입되면 다양한 데이터가 쌓여서 더욱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3년까지도 걸릴 문제로 보며 데이터를 어떻게 확장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 은행이나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케이뱅크가 하지 않은 해외 송금과 체크카드에 대한 후불 교통카드 기능 등을 예로 들며 오픈 시기가 늦춰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겨우 하루짜리 아이가 기존 은행에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중은행이 카카오뱅크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시중은행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자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케이뱅크는 최근 대출 고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몰려 신용대출을 중단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대표이사 이용우·윤호영)이 영업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증자는 문제없을 것"이라며 "대출을 중단하는 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수시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도 카카오뱅크의 출범을 격려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4차 산업혁명에서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남아있는 숙제(은산분리 완화)도 고민해보겠다"고 화답했

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고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다. 카카오뱅크는 당분간 은행 본업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년 부동산 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은행으로서 고객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jjy@news1.kr

우는 아이 뺨 때리나 카뱅 돌풍에 은행 불똥 '부글부글'

나이스신용정보 서버 과부하, 시중은행 대출 업무 지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 '나이스' 기관 장애에 따라 타임아웃, 나이스 등급 오류가 간헐적으로 반복적인 상황입니다. 오전 9시15분부터 10시30분 사이 대출 심사건 중 신용등급은 재심사 확인 후 거래하기 바랍니다. 나이스 조회 장애는 11시 이후 복구될 예정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 흥행으로 싱숭생숭하던 차나, 은행원 A씨의 업무용 컴퓨터에 공기가 뿜다. 케이뱅크에 이어 2번째 인터넷은행도 열풍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A씨는 '은행원의 장래는 어둡구나' 다시 한번 느꼈다.

카카오뱅크의 초반 흥행 돌풍이 나이스신용정보 서버 과부하로 이어져 일반 은행 대출 업무에도 지장을 줬다. 안 그래도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은 '메기' 출현에 속내가 불편한 시중은행은 뺨까지 맞은 기분이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후 1시 기준 고객 6만5500만명이 몰리는 등 초반 고객 몰이에 성공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객들의 반응으로 이날 오전 앱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도 속속 발견됐다. '계좌 개설 7분'을 내세웠지만,

고객이 폭주하면서 작동이 지연되는 등 시스템 오류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손쉬운 대출 상품 신청에 트래픽이 몰리며 나이스평가정보의 크레딧 뷰로(CB) 등급 조회기능이 오전에 마비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평균 3~6%에 달하는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와는 달리 2%대 금리로 낮춰 승부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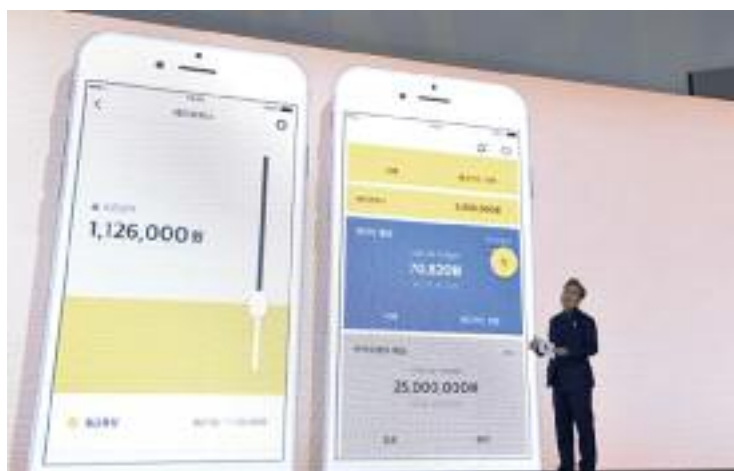
카카오뱅크의 '비상금대출'은 만 19세 이상이면 현금서비스 대비 낮은 최저 연 3.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60초

면 된다.

대출 조건이 좋다 보니 너도나도 대출 상품을 신청하자 '불똥'이 일반 시중은행에까지 튀었다. 시중은행도 대출 업무를 위해서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하는데 트래픽 과부하로 2시간가량 대출 업무가 마비됐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나이스평가정보 조회 트래픽이 몰려 과부하되면 은행 창구 대출 업무도 지연된다"며 "간혹 있는 일이지만, 카카오뱅크 출범 후 고객이 몰리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junoo5683@news1.kr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카카오톡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고객 '20만명' 임박 시간당 2만명 몰려

27일 오후 7시, 수신 426억·여신 145억 퇴근 시간 무렵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12시간 만에 고객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뒀다. 퇴근 시간 무렵부터 가입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후 7시 기준 신규 계좌개설 수가 18만7000건, 앱 다운로드 수가 33만5000건이라고 밝혔다. 예금 등 수신 상품에는 426억원이 모였다. 대출 규모

는 145억원이다. 시간당 2만명의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오전에는 시간당 계좌개설 수가 1만건씩 증가했는데,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시간당 2만1500건의 계좌가 개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7시 영업을 시작했다.

jjy@news1.kr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약칭 카카오뱅크)이 영업을 시작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식에서 직원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 받아 시연 및 카카오톡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계좌 개설을 비롯해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은행 영업을 시작했다

송동호종합로펌 최강이민팀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같은 스펙,
다른 결과!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NIW 금주 성공 사례

- J. Lee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서울대 전문학과 학사 & 석사,
콜롬비아 전문학과 박사, 논문 5개, 인용 39개
- W. Choi 고객 NIW 승인 케이스
-아주대 생물공학 학사 & 서울대 석사,
미시간 주립대 생물공학 박사, 논문 6개, 인용 123개
- J. Chang 고객 NIW 승인 케이스
-UC Irvine 생명공학 학사, Case Western 의대,
논문 2개, 인용 2건

NIW 해당 전공

• 컴퓨터/전자공학	• 의학/약학/간호학
• 생명공학	• 유전학/면역학
• 생화학/생의학	• 분자생물학
• 우주공학/천문학	• 치의학
• 환경공학	• 전염병학
• 재료공학	• 과학 교육
• 로봇공학	• 임상심리학/심리학
• 물리학/화학	• 경영학

※ 이 외에도 가능한 전공들이 많으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Q | 400 Kelby St., 7th Fl., Fort Lee, NJ 07024 •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CA • CT • DC • GA • MA • MD • NJ • NY • PA • VA • KOREA • CHINA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미국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우리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에서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남의 땅이라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힘들어 하는 일, 나서서 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터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SONGLAWFIRM

201.461.0031 | mail@songlawfirm.com

SONGLAWFIRM.COM Song Law Firm

📍 HQ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NY 1745 Broadway, 17th Floor, New York City, NY 10019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7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북쪽 풀플랜트, 연매상 \$160,000 소유자 은퇴(32년)

보스톤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남쪽 팩스보로 스타디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400,000
하이드로카본 기계, 고용인(3명)+소유자(1명)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0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뉴햄프셔 남쪽 런드로맷(소유자 부재 중 경영), 아파트(1 유닛), 사무실,
스토리지(100 유닛, 온도조절), 땅:3.5에이커, 모든 사업체+부동산 매매가격 \$2.2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1명+직원5명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3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Session 1: 6/26 - 7/14, Session 2: 7/17- 8/4, Session 3: 8/7 - 8/25
- 2017년 여름방학 단기 집중 3주 프로그램
- 10여년이 넘는 보스턴 명성과 신뢰의 교육원
- 처음 준비하는 SAT 부터 AP 과정 및 경시대회 준비 (Math, Physics, Chem, Bio, AMC 및 각종 Olympiad)
- 30명 이상의 검증된 강사진으로 영어, 한국어로 수업 진행
- 합리적인 수강료. 모든 강좌는 선착순 등록이며 수강 납부시 등록 확정

	SSAT/WRITING	SAT/ACT
09:00-10:00	단어 암기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0:00-12:30	Reading Comprehension & Essay, SSAT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30-01:00	점심식사	점심식사
01:00-02:00	Writing Essay와 에세이 첨삭	SAT/ACT Practice Test
02:00-03:30	SSAT Practice Test	SAT/ACT Practice Test
03:30-04:30	단어 암기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04:30-05:00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오답노트 작성 & Study Hall

저희 보스턴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입학 및 가디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BEW 만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메사추세츠 지역 공립 학교에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학원 프로그램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여름 집중 3주 SSAT 프로그램은 Upper Level을 위한 준비로, Rising 8 학년 부터, SSAT 를 요구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SAT 프로그램은 대학교를 지원하는 10, 11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수정예 수업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며, 밀착 학업 관리로 3주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부모마음 점심을 별도로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턴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